

ISSN 2383-9872

밧볼 이 되 고 불 씨 가 되 자

2015년 겨울



우리가
희망의
근거입니다



노들바라보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3 영망진창 낮 수업을 고발합니다
- 07 [교단일기] 쓰리고에 피박을 면하려면 생활수학
- 09 피플퍼스트가 대체 무어란 말인가

[2015년 노란들판의 꿈]

- 20 너와 나와 노란들판이 꿈꾸는 자리
- 22 여섯 번째 종로 노들 보치아 대회를 해냈다
- 24 의료는 인권이다!
- 27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해주세요!

- 34 탈시설 선언문
- 35 [장판 핫이슈 1] 우리 그냥 복지 지원하게 해주세요, 네?
- 38 [장판 핫이슈 2] 추락하는 사회에서 불안을 위무하는 방법
- 43 [고병권의 비마이너] 장애인과 배낭
- 47 좋은 시설은 없다
- 51 1017MHz, 빈곤철폐가 빛나는 날에
- 54 '턱턱'에 대해서
- 57 경기도 이동권이 영망이라고 전해라
- 65 엄마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 69 [노들아 안녕] 유코디는요 (유지영)
- 70 [노들아 안녕] '시원섭섭'보단 '시원불안'하달까 (정민구)
- 72 노란들판의 책도임 첫 발을 내딛다
- 74 노들센터에서 보낸 9개월
- 77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End? And...!
- 82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김나라 님
- 83 죽으면 아버지 만나서 따져봐야겠어요
- 91 [형님 한 말씀] 2015년의 끝자락에서

- 93 [장애인운동 알기 1] 장애해방열사배움터에 다녀와서
- 94 [장애인운동 알기 2] 장애해방학교를 마치고
- 96 전통휠체어축구, 들어보셨나요?
- 98 판에서 연극으로 경계를 허물다
- 102 사라진 주말, 멘봉의 연속 그리고...
- 105 [노들책꽂이] 『인생 따위 엮이나 먹어라』

- 108 비마이너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 112 [동네 한 바퀴] PL사랑방
- 116 [오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 123 [노들은 사랑을 신고] the power of 승배
- 126 2015년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급 안내
- 127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6호 2015-12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진수 박세영 정민구 조아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림 이은애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섬의 눈물을 모아
 바위에 기대 몸을 흔들며 파도로 흐느낀다지
 - 루시드폴의 노래 '4월의 춤'

노들바람을 여는 창

내년에는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읽기 순서 1,2위를 다투는 책으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의 책이고, 전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느 지면에 자신을 평화학 연구자라고 소개하는 정희진 선생의 책 『정희진처럼 읽기』에서, 프란츠 파농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려는 세상에 맞서 투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피부색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영원히 얼룩진 옷을 입음으로써 얼룩을 인식의 동기와 가치로 만들고자 했다.”는 소개를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 “평화 혹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얼룩진’ 옷을 벗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외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참 가슴에 와 박혀 여기 저기 옮겨 적곤 했습니다. 노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세히 만난 장애인-운동의 현장이 좋으면서도 힘들었던 이유, 감동적이면서도 피곤했던 이유가 저 문장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정희진 선생의 풀이대로 평화 혹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쩌면 운동한

다는 것은 얼룩진 옷을 입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걸 의미했습니다. 달리 말해 보면 싸움의 연속, 소외의 연속이고 그리하여 가치 있지만 고단한 생이 펼쳐집니다.

“얼룩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삶이 있다. 얼룩의 이물감, 분노 조절 실패, 사회적 시선과의 싸움…….” 마음가는대로 살아오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제 옷에도 얼룩이 진 게 아닌가 싶고, 이 옷이 좋기도 하다가 벗고 싶기도 한 이 마음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이게 다 뭘 소리냐고요? 제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놀랍게도, 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 노들바람을 만들어왔는데요. 다음호부터는 김도현 약학상근활동가가 책임 편집인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책 좀 읽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영망진창 낮 수업을 고발합니다

서둘러, 사납게, 따로 X
천천히, 즐겁게, 함께 O

박임당

수유너머N에서 주로 공부하고 있다가 지난 4월의 어느 날 노들의 낮 수업과 만나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 나의 탓이었던 걸까. 오늘도 J 형은 이 모든 것이 서로 전화를 하게 만들었던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인정하기 싫었던 나는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에요?’ 하고 ‘욱’ 하다가 그만 뒤버린다. 그런데 정말 나한테 책임이 없을까?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정녕 나라 말인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도 그저 그런 낮 수업 시간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수업 때 무엇을 할지, 아이디어가 없어 허덕이던 내가 야심찬 아이템을 들고 돌아왔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낮 수업은 ‘수업’보다는 ‘낮’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업을 함께하는 교사들은 발달장애로 구분되는 우리 반 학생 분들의 삶을 살찌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하느라 매 시간 골머리를 앓고 있



다.) 그 아이템은 바로 ‘우리끼리 연락하고 지내기’. 우리 학생 분들은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시지만, 그 사용 범위는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우리 반 분들은 4월부터 매일매일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된 것



고 받는 모습은 정말 좋았다. 수업이 끝나고도 처음 얼마간은 서로 통화했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면서 무척이나 즐거운 모습이었다.

증폭 되는 갈등, 갈등, 갈등!

하지만 거기까지. 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학생 분들의 원성은 높아져 갔다. 그것은 바로 우려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00이 전화를 자꾸만 해서 잠을 못 잤어!', '전화하지 마, 이쥬.', '00씨~ 내가 밤에 전화하지 말랬지~?' 한 명을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되고야 말았다. '아차!' 싶었지만 늦었다. 원하는 분들에 한해 수신 거부를 설정해 드렸다.

이 아직은 어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서로서로 연락도 하고, 끈끈하게 지내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고른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물론 우려는 있었다. 주로 교사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던 학생 분이 다른 학생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며 생길지도 모를 분란의 우려, 혹은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자주 안부를 묻게 될 우려. 그렇지만 보통은 친해지면 혹은 친해지려면 우선 전화번호부터 물어보게 되는 것이 우리네 풍속 아니던가? 외롭거나 괴로울 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얼마나 위안이 되던가?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당일 수업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았다. 서로의 번호를 저장하고, 한글을 모르는 분들은 서로서로의 사진을 찍어 주소록에 저장하도록 했다. 교실 내에서 까르륵 거리며 전화를 걸

그러나 정녕 그 사건이 불씨가 되었던 것일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은 끊이지 않고 진행 중이다. '빅재미'와 웃음이 많기로 소문난 우리 반이지만 웃음 다음에 곧바로 잔뜩 화가 난 고성이가 오가는 일 또한 많다는 사실을 외면할 순 없으리라. 그리고 그 반대로 날카로운 고성이가 오가다가도 웃음이 '빵' 터지는 상황 또한 이상하기로는 비할 데 없을 정도다.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는 어쩌서 이렇게 갈등 투성이인가? 이렇게 급격한 감정선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우리는 "천천히, 즐겁게, 함께"이지 "서둘러, 사납게, 따로"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갈 때가 있었다. 그런 날의 나는 어김없이 진이 빠지고, 다들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었다.



갈등 어루만지기 (단, 금지가 아닌 방식으로)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일 리는 없다.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는 함께 있었고, 때문에 갈등은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갈등은 우리를 갈라놓는 못된 녀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갈등으로 인해 서로 끈적하게 엉겨있는 썸이기도 한 것이다. 즉, 우리는 이 갈등을 천천히, 즐겁게 그리고 함께 풀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난달 야학에서 열린 '발달장애 인권 교육'에서 강사 선생님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살면서 겪어오는 삶은 주로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따르도록 강요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규칙들 중에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를 어기기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칙들을 함께 깨 나가는 것이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짜우지 말 것!'이라는 금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신속한 갈등 해결로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수업 목표와는 맞지 않다. 실제로 '욕' 할 때마다 갈등의 불길을 진압해보려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차별하지만 강한 어조로 교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화

해하도록 눌러버리는 방식이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금방 화를 누그러뜨린 K 언니는 자세마저도 쪼그라들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지만, 언니의 그 폭삭 내려앉은 눈썹 꼬리를 나는 잊지 못한다. 그 표정을 지표 삼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로, 권력 관계를 기반한 갈등 해결은 안 된다.

우선 갈등이라는 녀석을 요모조모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녀석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정말?) 우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있는 대로 찾아서 수업시간에 던져 놓았다. 그렇기에 애초의 전화 사태도, 각자의 목소리도 더 커져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마음껏 풀어 놓고 떠드는 바람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라면, 이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 아닐까?

어찌 됐건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억눌린 욕망이 군데군데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라고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규칙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소리를 듣기가 지금은 무척이나 괴롭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욕망을 다루는 법을, 우리의 이 뜨거운 불덩어리를 다루고 해소하는 법을 서로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 나들이를 갈 때 준수 형의 안전 운전 속도에 맞춰서 걸어 볼 수도 있고, 수연언니가 애써 한 자 한 자 뺏어내는 소리들을 인내심을 갖고 들어 볼 수도 있다. 주원이 형이 수업시간에 박차고 일어나 돌아다닐 준비를 할 때 다 같이 일어나 주원

이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 볼 수도 있다. 어쩌면 이렇게 사소하게 속도를 맞추어 가는 일이 절실했다는 생각은 왜 이제야 드는 것일까.

서로의 속도를 맞추어 보는 일이 있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서로 다가갈지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던 아름다운 올해의 마무리 — 화해와 용서의 대 화합 — 같은 건 이제 마음속에서 지워야 할 목록이 되겠다.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을 자꾸만 함께 해 보아야겠다. 바로 내일부터.

【 교단일기 】

쓰리고에 피박을 면하려면 생활수학

임영희

동건이랑 유리랑 살고 있음. 보보와도 곧 함께 살게 될 예정.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노들야학과 함께하고 있음.



“영은이가 14점 났는데, 흔들었고 쓰리고다. 준수는 피박, 우리는 피박에 광박이다. 각각 얼마를 내야 할까?”

노들야학 생활수학 2반의 모습입니다. 생활수학은 <생활에 필요한 수학을 배워서 익히자>라는 모토로 노들야학에 도입된 지 몇 년 안 된 과목입니다. 주로 청솔2반에서는 “내 밥그릇 잘 챙기기 위한” 목표로 수



업이 진행되고 있죠. 계산 못해 손해 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당 교사의 욕심이구요.

“시장 보고 거스름돈 잘 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복숭아 5키로 한 박스를 사왔는데, 5키로가 맞는지 궁금해. 한번 달아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구요.

이번 학기엔, “게임을 통해 숫자 배우기”도 함께하고 있는데, 화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화투장들이 의미하는 숫자와 뜻도 함께 공부하고, 화투를 이용한 대표적인 놀이들을 배우고 직접 실습했지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화투를 이용한 게임이 처음이었다구요. 몇몇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해 본적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해봤는데, 인터넷 게임은 정말 빠르고 정신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 ‘빨리빨리해~’ 이런 멘트가 바로 날아오더라고요. 노들의 속도와 맞지 않아요~ ㅋ

화투를 공부하는 수업은 총 5번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①화투란 무엇인가? ②화투의 기본 민화투 ③민화투 실습 ④새로운 게임-고스톱의 복잡성과 다변성 ⑤고스톱 실습, 이렇게요. 화투의 그림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배우고, 숫자를 외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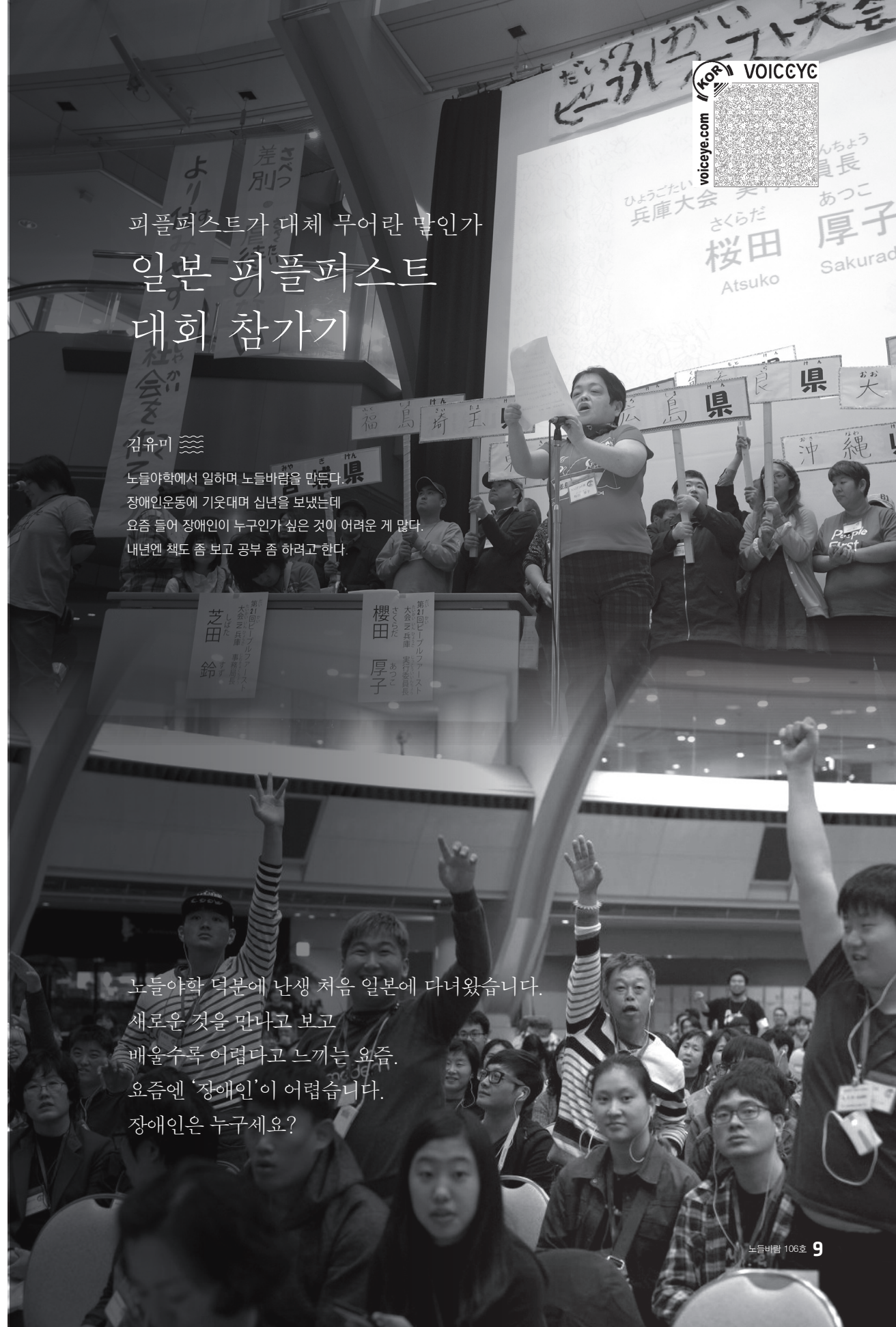
우와! 생각보다 학생들이 열심히 집중하고, 수시로 눈이 번뜩인다 싶었는데, 우우와와!! 민화투 실습하는 날이었어요. “차O 학생”의 눈이 정말 반짝거렸어요!!!! 일 년 넘도록 같이 수업을 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다니. ㄱㄱ 정말 감동이었습니니다. 항상 새롭음과 설렘으로 지루함이 파고들 틈이 없는 노들야학 교사생활이지만, 이런 감동은 실로 오랜만이었다구요.

고스톱 실습을 하던 날도 그랬습니다. 예로만 들던 일이 실제 상황이 되어 버렸지요. 정이가 대박이 납니다. ^^

“29점에 쓰리고. 기훈이는 광박,
준수는 피박에 광박!”

계산을 하며 흥분해 하던 정이의 모습, 역시 감동이었습니니다. ^^

이렇게 늘 새로운 에너지들로 충만한 청솔2반 생활수학!!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들 계속 파이팅 해 주세요~ ^^



피플퍼스트가 대체 무어란 말인가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 참가기

김유미 ≡≡≡

노들야학에서 일하며 노들바람을 만든다.
장애인운동에 기웃대며 심년을 보냈는데
요즘 들어 장애인이 누구인가 싶은 것이 어려운 게 많다.
내년엔 책도 좀 보고 공부 좀 하려고 한다.

노들야학 덕분에 난생 처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고 보고
배울수록 어렵다고 느끼는 요즘.
요즘엔 ‘장애인’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은 누구세요?



올해 야학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낯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중간 발표회로 10월에 '노들 피플퍼스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낯수업반 학생들과 교사들 중심으로 이뤄졌고, 저는 옆에서 열정거리며 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 대체 그것이 뭐가 싶었습니다. 마침 10월 30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21번째 피플퍼스트 대회에 견학을 가기로 합니다. 피플퍼스트에 대해서는 글이나 기사로 여러 번 봤는데, 봐도 잘 모르겠고 감응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튼 운 좋게 일본으로 견학을 갔더랍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니 대구에서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를 연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번엔 낯수업반 사람들과 대구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좀 한꺼번에 노들, 일본, 대구판 피플퍼스트 대회를 경험하게 되었네요. 그리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제가 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 해대니까 피플퍼스트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피플퍼스트는 영어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피플과 먼저라는 뜻의

퍼스트를 합친 말이지요.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그런 뜻인데요. 왜 이것이 대회의 이름이 되었냐 하면, 이것이 대회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유서 깊은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스웨덴에서 정신지체인 클럽을 중심으로 자기옹호 운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8년엔 장애인 부모단체가 1회 자기권리주장 대회를 열기도 하고, 이후 여러 곳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1973년이 되어 미국 오레곤주에서 당사자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한 장애인 참가자가 자신이 “mentally retarded(정신지체)”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I want to be treated like people first.” 그러니까 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 라고 말한 거지요.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으로 ‘피플퍼스트’라는 이름의 운동이 조직돼 나갔다고, 피플퍼스트는 지적·발달장애인 스스로 중

심이 돼 활동하는 조직과 운동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플퍼스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대회를 참관할 때 여러 번 반복해 들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이들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른바 ‘조력자’들은 당사자보다 먼저 나서서 발언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 인간사회에서 어딜 가나 해당하는 원칙 같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다분하고 특히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선 더욱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잘해주고 싶은 ‘선의’에 의해 그리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조력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학습은 중요하고 되새김질할 만하다고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는 비발달장애인 조력자의 위치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애썼습니다. 조력자의 위치에서 재밌는 건 발달장애가 있지 않은 신체장애인 활동가들의 태도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은 “그동안 내가 비장애인 질서에 맞서서 내 권리를 말하려고 얼마나 싸워왔는데, 여기 오니까 나보고 조력자래.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래!”라며 당황하기도 하더라고요.

피플퍼스트 대회에 다녀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여러 입장에서 몇 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들바람에 새로운 글을 쓸 기력이 부족하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연 피플퍼스트 보고대회 때 발표한 글을... 조금 수정해... 여기에 우려먹을까 합니다. 저는 고베에

서 열린 21회 피플퍼스트 대회 이튿날 분과회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부끄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스미마생. 이 발표문의 제목은 ‘자리를 바꿔 볼까요?’입니다.

“여러분 힘낼 준비 되셨어요?”

고베 피플퍼스트 대회 이튿날 오전 제가 참여한 분과회의는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분과회의의 전체 주제는 12가지였고, 저는 ‘힘이 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8분과에 참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참가 인원이 12개 팀으로 쪼개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의 주제 12가지

- 1 피해자권리조약
- 2 일
- 3 피플퍼스트란 무엇인가
- 4 더욱 알기 쉽다란 무엇인가
- 5 모두가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 6 말과 커뮤니케이션
- 7 자신의 역사를 말하자
- 8 힘이 나는 이야기
- 9 그룹 홈
- 10 결혼, 연애
- 11 자신에 대해 자랑하자
- 12 학대사건에 대하여

‘힘이 나는 이야기’ 8분과회의는 7~80명쯤 되는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한국 사람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해서 궁금한 게 있어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상대가 말을 걸어도 답하지 못하고, 통역 수신기에 의존해 미소만 짓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참가한 ‘힘이 나는 이야기’ 8분과는 다섯 가지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말을 하는 회의였습니다. 이토 쿄스케 씨 등 5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몸 풀기 마음 풀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동안 저는 짧고 굵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행자들은 분과회의 참가자들이 대회장에 입장할 때 빨강, 노랑, 파랑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행사가 시작하자, 그것을 몸 아무 곳이나 붙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팔뚝에, 가슴팍에, 얼굴에 자유롭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같은 색깔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찾아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짧은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색깔 스티커를 찾는데, 저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력자인데, 나도 참가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 어떤 여성이 다가와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름 말고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의 답을 기다리는 그 분에게 한일 장애인계의 연대를 위해 거창하게 답해주고 싶었습니다만,나마에와 유미(내 이름 유미), 캉코쿠진(한국 사람), 스미마생(죄송)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과 당 한 명뿐인 통역자

는 저쪽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성사시켜주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나름 한국에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갖고 닦아왔습니 다만, 몸 풀기 마음 열기를 하는 동안 지금 내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이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함에 영어가 섞여 있던 몇몇만 비발달장애인, 조력자이겠거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가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해봤자 이들과 소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나는 무슨 장애 비장애 구분병이라도 걸렸나, 이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 등으로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일본말을 못하면 턱살이라도 있어서 잘 놀면 좋았으련만, 저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고, 빨리 본대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며 저와 몸 풀기 마음 열기를 한 사람들은 나를 한국에서 온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그러면 장애인은 대체 뭘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인사 시간이 지나가고 본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가지 주제로, 한 명이 하나의 주제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사람이 먼저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면, 이어서 무대 아래 참가자들이 발표를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 무대 위 진행자가 한 명씩 지목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힘이 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나는 행복하다’였습니다. 무대 위 진행자는 다

함께 ‘나는 행복하다’를 외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는 행복하다’를 세 번쯤 외친 뒤, 언제 행복한지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멋있어 보일 때 행복해요.” “저는 매일 매일 행복해요.” “혼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혼자서 살자!” “외출할 때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갈 때 또 하나는 노래방에 갈 때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목청 터져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 대한 한두 문장의 발표가 설 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카무라 씨는 화이팅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을 알 수 없는 발표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발표 내용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발표를 마칠 때마다 응원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 주제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모두에게 친절하게’,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멋지다’였습니다. 비발달장애인 대회였다면, 이 주제들은 행복추구권, 자기존중감, 자기결정권, 권익옹호 같은 압축되고 다소 어려운 단어들로 이야기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쉬운 말들로, 조금은 귀엽고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는 활기차게 계속됐습니다. 무대 아래 사람들은 “하이~”라고 외치며 손을 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 진행자가 손을 든 사람들 중 발언자를 마음속으로 골라 “앞쪽에





분홍색 티셔츠 입은 남자분” “뒤에 안경 쓰고 까만색 티셔츠” 이런 식으로 지목하고, 조력자들이 뛰어가 마이크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진행자는 종종 마이크가 잘못 전달되면, “아니요. 그 옆에 옆에, 뒤에 까만 티!”하고 다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거예요’를 주제로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랑 섞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참가자들이 처한 사회 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자신이 결정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보자고 하니, 사람들은 자신의 자립생활을 자랑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것. 저 정말 훌륭하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립생활을 응원하면서 말이지요. 이 외에

도 “저는 혼자서 외출해요.” “지금부터라도 밖에서 사는 것을 제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피플퍼스트에 항상 참여하는 것이예요. 일도 잘하고 있어요. 피플퍼스트에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같은 자기 다짐들을 발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립생활에 관한 자랑과 응원의 말들이 쏟아진 것은 일본 역시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 첫날 대지진과 학대사건에 대한 발표에서는 거주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거주시설로 보내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들이 있었고, 재해가 없었을 때도 원치 않는 시설 생활을 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사회와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장애인당사자들은 거주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 주제들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열렬한 발표 요청과 엄격한 선정 속에 이뤄졌습니다. 분과회의 중반이 넘어서자 조력자로 참가한 저를 비롯한 한국 참가단에도 발언권이 주어졌고, 문 모 활동가가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한국 광화문에서 장애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발언해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진행자는 저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편에 앉아있던 한 여성은 대회 말미에 “혼자 이렇게 화이팅하고 있는데 안 시켜주다니... 지금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라며 큰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분과회의 초반에 한 차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목을 받은 사람들이 발표하는 걸 지켜보는 건 저로서도 흥미진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진제가 비발달장애인의 정체성으로 (구분돼) 오래 살아왔고, 또 이렇게 많은 발달장애인분들과 이런 대회를 함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와 토론회를 술하게 다녀보았지만 이토록 열렬히 발표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 첫날 ‘다-대회’ (자유주제 발표) 때도 그랬고, 이 8분과회의도 그랬고 사람들은 끝없이 “하이~”라고 외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통역기를 통해 이어지는 발표를 듣다가 조금 지쳤습니다만, 발표는 끝없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니, 하는 생각에 좀 놀랐습니다. 지목을 받은 사람 중에는 마이크를 쥐고

‘음음음’ 하는 소리를 내다가 그냥 자리에 앉는 분도 있었고, “에또,, 에또... 에또...”를 열 번은 넘게 반복하며 짧은 문장을 발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화려한 어필을 통해 지목을 받은 어떤 사람은 바로 앞 사람이 발표한 내용 “즐거웠습니다”를 똑같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발표 열망 자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발표하는 분위기였지만, 가만히 자리에 앉아 듣고만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모두가 다 어떡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장을 어슬렁거렸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며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는 사람도 있었고, 큰 소리를 내며 우는 분도 있었고, 양손을 휘저으며 활동보조인이나 옆 사람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눈에 꽤 종종 발달장애인으로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일본말을 못하는 제가 알아차릴 정도로 다른 이의 발표를 방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딱히 제지하는 사람 없이 그대로 행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그대로 껴안고 가는 것이 피플퍼스트 대회의 미덕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좀 다른 생각이 일기도 했는데, 이를 테면 **대회장을 뛰어다니면 뭐 어떨까? 앉아 있기 싫을 때 별떡 일어나 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는 자가 있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 길들여졌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에서는 좀 더 멋있는 분을 보기도 했는데, 이 분은 행사 초반에 무대에 올라가서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뛰었고, 보통은 무대 한 곳에 앉아 있는 식이었습니다. 행위 예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유와 매력이 넘쳤고, 무대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떨하든 그 분을 유심히 계속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장애인 중심의 대회들, 행사들은 이른바 잘 세팅되고 매끄럽게 짜인 무대를 선보이려고 무지 애쓰고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데, 그와 다르게 그런 질서들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 곳 역시 굉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가 말을 더듬다가 “다시 처음부터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무대 옆에서, 아래에서 “잘할 수 있어. 파이팅.”하고 외쳐주거나 옆 발표자가 대신해 발표문을 읽어주고, 원래 말은 사람이 다시 용기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도 괜찮은 무대. 이 무대를 보면서 저는 점점 무장해제 돼가고, 유쾌해져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강고한 비발달장애인 사회의 질서를 한방에 무너뜨리는 능력이 발달장애인들과 이 대회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체 대회와 마찬가지로 본과회의 역시 진행과 발표가 ‘쉬운 말’로 이뤄졌습니다. 한국말로 통역된 일본인들의 발표 내용은 “저는 매일매

일 행복해요” 같은 단순한 짜임의 쉽고 직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발표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회 첫날 첫 발표를 들으며 뭔가 내용이 부실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실수투성이인 이 대회와 사람들이 그저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보거나 미성숙한 자로 치부하는 시선이 내면화되어 그리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검열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장애인 사회에 찌든 소감을 쉬는 시간 어느 동료 활동가¹⁾에게 전하자, 그가 말하길 ‘피플퍼스트 대회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물을 놓고 비장애인 시선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꼬박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준비해 온 행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발언권이 없는 상태로 대회를 계속 지켜보게 되면서 이 피플퍼스트 대회가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의 자리를 역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향해 수없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구박해온 입들이 틀어 막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올해 번역돼 나온 책 중에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한다』가 있는데, 피플퍼스트 대회가 비장애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자리의 역전, 위치 바꾸기를 통해 ‘듣는 훈련’의 기회를 얻었습니다.²⁾

이 말들은 의미가 없는가? 이들은 아이 같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플퍼스트 대회는 이 세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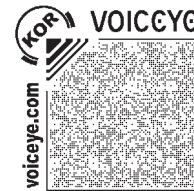
그리고 이어 자기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의미 있는 것으로 혹은 부족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듣는 이들의 태도 아닐까? 무시해온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존재로 불쌍히 여겨온 것 같은데? 나는 그동안 이들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었던 게 정말 맞는가? 위계 속에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 앉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말(행동)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건 나 아닌가? 우리 사회 아닌가? 이렇게 입장을 뒤집어보게 되는 반성과 전복의 생각이 계속 일어났는데, 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함께 견학을 갔던 비발달장애인 참가자들의 공통된 호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니 자조모임이니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만나야 한단 말인가, 문제행동으로 치부해오던 일들을 어떻게 이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발언권이 없는 상태로 대회를 계속 지켜보게 되면서 이 피플퍼스트 대회가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의 자리를 역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하고 해결해갈 것인가? 당사자 중심으로 내용을 바꿔간다면 까다로운 사업 증빙까지 해내야 하는 기획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등등...

어쨌든 이런 고민과 답답함이 곳곳에서 생겨났다는 것,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이해의 태도가 심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번 피플퍼스트 대회 견학의 성과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 1)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이찬미. 야학 낮수업에 참가하는 소민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고베에서 유명하다는 스타벅스에 함께 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고베 스텍이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다. ㅎㅎ
- 2) 혐의회 평가모임 자리에서 그리고 고베 일대를 함께 싸돌아다니던 와중에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사무국장은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해줬다. 발달장애인의 언어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당시 나는 쇼핑 마귀가 쓰여 남은 시간엔 뭘 먹고, 뭘 사러 갈까 고민하느라 사람 말은 잘 안 들었는데, 다행히 그때의 말이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다시 자꾸 생각나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똑바로 이해한 건진 잘 모르겠다.



2015년 노란들판의 꿈 이야기

니(you)!
나(me)!
노(노란들판)!



【 2015 노란들판의 꿈 - 모아 】

너와 나와 노란들판이 꿈꾸는 자리

김진수

야학교사 진수입니다. 요새 취미는 점심시간마다 낙산에 올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보는 일은 언제나 좋네요.

꿈은 꾸고, 펼치고,
열리고, 이룬다.
그렇기에 꿈에는
자리가 있다.
너와 나와 노란들판이
꿈꾸는 자리. 그 곳.
올해도 어김없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 꿈은 열렸다.
2015년 10월 10일.
노란들판의 꿈
'니! 나! 노!' 꿈이
펼쳐진 그 자리는
이랬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비는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했고, 그에 맞춰 구름은 해를 숨기고 보여줬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꿈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고, 낮마당이 시작됐다.

노들을 비롯한 여러 연대 단체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웠다.

노들야학에서는 피플 퍼스트, 나눔 장터, 국어반과 미술반 작품전시회 등을 열었고, 노들센터는 마로니에 공원 입구부터 편의시설 모니터링 부스를 차려 홍보에 바빴다. 문예판을 비롯한 카페 별꼴, 센터 판, 법

인도 각각의 주제(간식 부스, 센터판 홍보 부스, 활보 노무 상담소&활보 이용인 타로 궁합)에 맞는 부스를 차리고 활기차게 움직였다.

연대 단위인 장애인주치의 제도화 부스는 '의료는 인권이다'가 쓰여 있는 풍선을 든 사람들로 붐볐고, 빈곤사회연대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인증샷을 찍으며 홍보에 나섰다. 내성천의 친구들은 마로니에 공원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렸고, 청한 한방진료소 부스에는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오후가 되자 공연장엔 사전 마당이 열렸다. 장애인주치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인권 한마당과 피플퍼스트 대회가 열렸는데, 여러 공연 팀들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그 분위기는 밤마당까지 이어졌다. 음악대가 흥을 돋았고, 댄스반은 끼를 뽐냈다. 철학반의 연극은 달아오른 분위기에 균형을 맞췄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발표할 때는 모두가 몽클했다. 그 후에도 다른 연대 단체의 공연과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노들야학의 합창으로 노란들판의 꿈은 마무리 됐다.

공연이 끝난 마로니에 공원은 조용했다.

꿈이 펼쳐졌던 자리에는 어둠이 남았다. 어둠이 지나면 우리는 또 꿈을 펼치고 있을까? 어쩌면 꿈은 이미 저 어둠속에 영글고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과 나와 노란들판의 꿈이.



【 2015 노란들판의 꿈 - 하나 】

종로 노들 보치아 여섯 번째 대회를 해냈다

김문주

저는 노들센터 김문주 활동가입니다. 노들센터에서 권익옹와 자립생활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 보치아 담당자입니다.

제6회 종로 노들 보치아 대회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발전했던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소의 문제와 선수들 동원 문제와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러 시민들과 같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실내의 공간을 마련하여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센터 활동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통해서 대회를 도와준 센터의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센터 활동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회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센터의 활동가들은 무거운 짐을 날라 주었으며,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센터의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대회가 잘 진행되었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재미있고 즐겁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경기를 해보는 팀들도 있었지만, 많은 대회 경험이 있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국체전에 입상했던 사람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팀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팀은 비록 부족했지만, 이날을 위해 4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장장 7개월을 땀을 흘리며 연습을 했습니다. 7, 8월 한 여름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했던 기억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팀의 고된 훈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단 1승을 하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승을 한번 해보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팀원들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글을 통해 참여한 선수들과 센터의 활동가들과 활동보조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치아의 한 팀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노들보치아 팀!

【 2015 노란들판의 꿈 - 들 】

의료는 인권이다! 장애인주치의제도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

박누리

노들 법인 소속으로
노들야학 교사를 하고 있는 누리입니다. (건조하게)

의료는 인권이다!
장애인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의 슬로건
이다. 이런 슬로건이
나온 배경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의료수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 같다.



장애인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문턱이 높다. 병원은 대부분 건물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 또한 많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 상당히 있어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병원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또한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부터 장애인 몸에 대한 이해까지, 장애를 접해보지 못한 의료진이 많이 있어 장애인들이 병원의 문턱을 넘는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는 인권임을 우리 모두 확인할 자리가 필요했다. 그렇게 장애인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은 열리게 되었다.

‘장애인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국회의원이 법안소개를 하였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이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여러 의료단체와 장애인단체의 대표들이 나와 의료가 인권임을 선언하는 의료인권선언에 함께하여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 무대가 펼쳐졌다. 이 행사의 축하를 위해 강허달림과 박준의 공연무대도 이어졌다.

그리고 무대 밖에서 펼쳐진 부스는 청진기와 의사가운을 입고 ‘의료는 인권이다’가 쓰인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인권 선언에 대한 지지의 증표였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주치의제도 실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그 필요성과 의미에 크게 공감하며 인증샷을 찍고 서명을 해주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故김준혁 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장애인주치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했다. 다시는 준혁 씨와 같은 일로 우리 동지들을 떠나보낼 수 없기에 이 행사를 조금 더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행사는 큰 사고 없이 잘 끝났고, 시민들 또한 많이 공감하고 지지해주었다. 행사를 치르는 내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가 인권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병원에 대한 문턱이 허물어져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故김준혁 씨는 언어 및 지적 중복장애 3급 진단의 장애를 가졌지만 민주노동당 등 사회활동뿐 아니라 장애인 처우,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고인은 장애로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고, 가족도 없이 혼자 정부가 주는 기초생활비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고인은 맹장이 터져 복수가 차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했다.

결국 통증이 심해지고 고열이 지속되는 응급 상황이 되어서야 이웃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갈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수술에 동의해 줄 가족이 없었다. 매우 응급 상황임에도 시립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친척이라도 찾아야 한다면서 시간을 보냈다. 고인은 친척이 당도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보증을 서고 나서야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허나 이미 상황은 너무 늦었고 수술을 마치고 한 시간도 못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故김준혁 씨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주치의가 있었고 주치의가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까운 공공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처치가 가능했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2015 노란들판의 꿈 - 셋】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해주세요!
학생 글 발표 '노란들판에서 자라는 꿈'

가나

야학에서 세 학기 째 국어수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실천하셨던 이오덕 선생님을 본받아서 학생들과 글쓰기 수업을 해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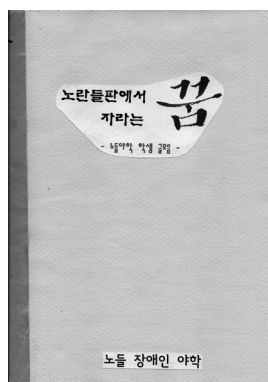
“이번 행사 때 쓴 학생들 글을 노들바람에도 실어보면 좋겠네요.” 이 말은 언젠가 야학에서 점심 급식을 먹으며, 김유미 선생님과 나누는 말이었다. 그 말이 이뤄졌다. 말은 힘이 센가 보다. 나는 '노들바람'에 내는 네 번째 글을 쓰고 있다.



이 글들은 <노란들판에서 자라는 꿈>이란 제목으로 올해 '노란들판의 꿈'에서 발표(전시와 낭독)하였던 글이다. 자기 손으로 글을 쓴 학생도 많지만,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누가 대신 받아 쓴 글도 많다. 어떤 학생들은 글 한 편을 쓰는데 무지막지한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 고생을 견뎌가며 왜 글을 썼을까? 자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동안 차마 내보이지 못했던 생각과 속내는 얼마나 많았을까? 이들은 노들바람에 자기 글을 몇 번이나 내보았을까? ... 글을 쓰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 글들을 모아서 손으로 만든 단 한 권의 책이 남았다. 글을

쓰려고 오랜만에 그 책을 펼쳤다. 맨 앞에 실은 경남 누나 글이 눈에 들어온다. 제목은 <가족들을 꼭 찾고 싶어요!>다. 누나는 정말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먼 훗날, 이 글을 쓴 학생들과 내가 모두 야학에서 떠나있을 때, 이 책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이렇게라도 '노들바람'에 글 몇 편이 실리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글을 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글들을 누가 또 보게 될까?



2015년 노란들판의 꿈

제목: 꿈

이름: 박진호

꿈이란 뭐일까?
 사람마다 꿈이 있지
 나는 37년동안 꿈이란 걸 꿈쩍이 없다.
 37년 동안 귀머지 못한 꿈이 저금 생겼다.
 장애인 이 아닌 비장애인들이처럼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다.
 내게 지금 꾸고 있는 꿈은 비장애인에게는 꿈이 아니지만,
 나에게게는 작은 바람이자 이루고 싶은 꿈이다.
 현재는 부족하고 실현이 불가능 할지 몰라도 ...
 노력해서 조금씩 비장애인을 따라잡는것이 나의 바람이다.

2015년 노란들판의 꿈

제목: 엄마 품에서 벗어나기!

이름: 정수연

태어날 때부터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립" 이 두 단어는 제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단어였죠.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제3자가 저를 돌봐주어야 하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꿈 꿔봅니다.
 나이가 들고 생각이 달라져 저도 이제 다 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부모님께 의지하여 살아갈수만은 없기에...
 엄마 품에서 벗어나 ~~비장애~~ ^{남들} 처럼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하고, 저답은 아이도 낳아보고 싶습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사업 - 그 오빠랑 함께 살고 싶다!

청솔2반, 이름 (최영은)

나에게는 사랑하는 오빠가 있다.
 그 오빠는 내가 처음 희망의 집에 오자마자 좋아했다고 했다. 그 오빠는
 "예쁜 여자 후배가 들어왔네?" 하면서 나를 몹시 마음에 들어 했었다.
 나도 그 오빠를 좋아했었다. 잘생기고 마음씨도 착했다. 같이 퇴소해서
 그 오빠가 "영은아, 나 너를 좋아해!" 진심으로 나한테 고백했다. 그 후로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다가 평원재 식구들한테 들키고, 노들 사람들한테
 들켜서 노들의 정식 커플이 되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넓은 신혼집을 구해
 서 살림을 차리고 싶다. 그런데 수급비가 깎이는 것 같아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된다.

정말 재미있던 꿈

목 우경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뽕색 꿈을 꾴다.
 주위에서는 이게 '태몽'이라고 한다. 내 주위에
 는 태몽이라고는 대신 껴주었던 여자들이 많은
 데 왜 자주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은 내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일까
 생각도 든다.
 이런 뽕색처럼 나도 빛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 줄기 바람일까?
 금제 진주는 싫다. 왜 싫은지 하면은 진주가
 가진 뜻은 '눈물'이라고 해서 싫다. 나는 웃고
 싶지, 울고 화내는 삶은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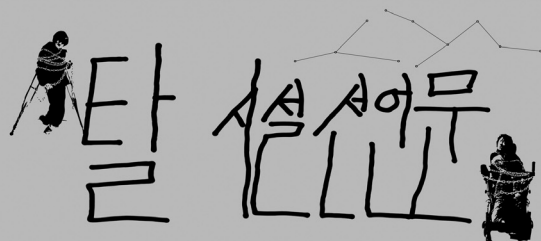
제목: 나의 자립생활의 시작

이름: 김진석

29년이라는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고
 체험용으로 나와 생활을 시작한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앞으로 나의 목표는 공부를 해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토크도 벌고 저축도 하면서 자유품계
 여행을 다닐 것이다.

탈시설 선언문

2015년 11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탈시설 콘서트에서 발표된
'탈시설 선언문'입니다.
이 권리 선언문은
탈시설 당사자들이 모여
몇 차례의 토론과 논의 끝에
직접 만들어낸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노들의 김명학 님이
글자로 옮겼습니다.



[전 편]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바로 잡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 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통제에서 오는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없는 단체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 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 및 탈시설 선언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 할 정책 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1조: 우리는 모두 **다름**이 있다.

제2조: 우리는 **시설**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3조: **삶은 모두 다 동등**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시설**은 장애인은 **돈**뿐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제5조: **시설**은 **감옥**처럼 **빠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곳**이 **아니** **아**.

제6조: **내 삶**을 **보호**하는 **곳**은, **시설**이 **아** **지역사회**나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한다.

제7조: **정**부는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

제8조: **모든** **사람**은 **평**등한 **지**평 **생**활 **권**을 **많**이 **만**들 **어** **다**.

제9조: **정**부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협**한 **원**칙 **아** **아**.

제10조: **모든** **장애**인에게 **등급**이나 **유**형에 **상**관 **없**이 **환**동 **자** **생**활 **권**을 **무**시 **화** **하**라.

제11조: **법**만 **촉**박은 **동**물 **로** **취**급 **하**지 **말**라. **우**리 **도** **인**간 **이**.

제12조: **모든** **장애**인 **고**등 **학**교 **까**지 **의**무 **교육**을 **실**현 **하**라.

제13조: **정**부는 **공**공 **장**소 **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를** **무**시 **화** **하**라.

제14조: **우**리 **어**는 **곳**이 **어**는 **곳**이 **아** **아**. **모**든 **대**중 **교**통 **수**단 **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를** **무**시 **화** **하**라.

제15조: **약**자 **가** **없**어 **장**자 **가** **없**다! **어** **모**든 **것**이 **저** **것**이 **아** **아**, **우**리 **모**두 **가** **평**등 **하**고

평등 **하**고 **살**을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 **은** **탈** **시설** **선**언 **문** **에** **대**하

어 **선**언 **문**이 **유**어 **를** **여** **기** **어** **함** **겨** **치**. **차**이 **있**은 **것**, **시설** **밖** **으** **로**!

"이 권리 선언문은 탈시설 당사자들이 모여 몇차례의 토론과 논의 끝에 직접 만들어낸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 장 판 핫 이슈 1 】

우리 그냥 복지 지원하게 해주세요, 네? 형님의 횡포에 대한 어느 지지체의 호소

서기현

IT업계의 비장애인들 틈바구니에서 개고생하다 장판에 들어와 굴러먹은 지 15여 년. 현재 어느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놓고 먹으며... 오로지 주동아리 하나로 버티는 중.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지체입니다.

요즘 저는 아주 아주 머리가 아프답니다. 나라에서 제가 제 돈을 들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요. ㅠㅠ

사실 대놓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복지 사업 중에서 유사·중복인 것을 *자율적*으로 찾아서 보건복지부 형님과 *협의*해서 정비하라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나라에서 살짝 모자란 복지를 제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없는 살림에 어렵게 하고 있던 건데 그걸 정리하라니요? 도와주질 못할망정... ㅠㅠ

엇그제 그분과 특한 내용을 공유할게요. (그분께는 비밀요... ㅠㅠ)

지지체 단톡방 4

복지부

어이, 음병시, 너 돈 많은가봐? 뭘 이렇게 퍼주고 있어?

네? 갑자기 무슨...?

복지부

나도 안 하는 걸 왜 네가 하고 있냐고... 아놔... 댄 애들도 너 때문에 할 거 아냐... 가뜩이나 지금 나라에 돈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주고 있지? 그거 우리가 주는 거 하고 중복이잖아. 하지 말라고..

지자체 단톡방 3

나

아, 아니 그건 형님이 다 못주니까 나머지만 조금 주는 건데요???

복지부

아 몰라, 여튼 중복이잖아. 하지만, 하지 말라 하면 하지마.

나

???

복지부

그거 줄려면 그만큼 네 월급(교부금)에서 깎 테니까 알아서 해. 난 얘기했음.

나

그런 게 어디있...?

복지부 님이 나갔습니다.

나

.....

병정시

또 시작이야... ㅋㅋㅋㅋ 저 형님 어제 나에게서 어르신들에게 장수 수당으로 2만원 드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깨지랄 하더라 ;;;

나

그거 큰 누님이 약속 못 지키 기초연금 대신 네가 빚내서 드리던 거 아니었어?

지자체 단톡방 3

병정시

빚까지 아니고 다른 데 쓸 돈 아껴서 드리던 거였는데... 하아...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키던가... 어르신들은 그 누님 그 약속 보고 뽑아준 건데... 저렇게 입 싹 닳고 있으니...

아무시

그 누님 약속 안 지키 게 어디 한두 갠가... -.- 요즘에는 출장가셔서 못 자랑만 하던데... ㅋㅋㅋ 그나저나 저 형님은 뭘 믿고 저렇게 날뛸데...?

병정시

그 누님.

아무시

아..... ;;;

물론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복지부가 중복 유사 사업을 정리하라는 근거로 드는 사회복지기본법 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사전에 서

로 협의해야 하구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복지부가
이 기준을 제멋대로 그때그때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자체의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복지부가 그 정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지난해에 대구시는 2015년 2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복지부는 그 정책에 대한 협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그 정책은 무산된 적이 있지요.

인천시에서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그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부랴부랴 장애인 단체에

서는 그것을 막고자 인천시청을 점거하는 농성을 진행했었고 일부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죠. 하지만 복지부의 방침, 그러니까 중복 유사 사업을 없애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진 않았어요.

복지부의 입장은 이렇게 중복 유사 사업을 정리하면 저장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자체에서 받고 있던 지원이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이구요.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체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발 우리 그냥 복지지원 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복지부님?**



【 장 판 핫이슈 2 】

추락하는 사회에서 불안을 위무하는 방법

서울 제기동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커리어월드’ 사태

강혜민

노들바람 편집하는 노모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나 커피. 커피 사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커피 마시는 만큼 일을 잘 하고 싶어 하는데 출퇴근이 힘들어서(용인 시민) 요즘 많이 피곤해한다. 커피 사주면 좋아한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2015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일

중학교 내 사용하지 않는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인 ‘커리어월드’를 설립하고자 했다. 예정대로 2016년

상반기에 개소된다면 이 센터엔 고등학생과 고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발달장애인 90명이 다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중학교 내에 고등학생 연령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들어올 수 없다”며 반대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공사 시작 전에 세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반대 측 주민과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아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계획대로 9월 21일 공사를 시작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공사는 3일 만에 중단됐다. 이후 반대 측 주민들은 학교 앞에 천막을 치고 설립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 앞과 인근 빌라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던 중 11월 2일, 성일중학교에서 6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반대 측 주민 100여 명의 난입으로 설명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반대 측 주민들이 서로를 향해 무릎 꿇은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커리어월드 사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센터 설립을, 반대 측 주민들은 성일중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줄 것을 서로에게 호소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후 교육청은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장애인부모, 반대 측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나갔다. 11월 11일엔 조희연 교육감과 반대 측 주민들이 5시간에 걸친 릴레이 토론 끝에 11월 24일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단, 교육청이 주도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공사는 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공단의 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나뉜다)가 먼저 이뤄지는 동안 교육청과 공단은 주민들과 남은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로 하는 조건이 전제됐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재개되자 반대 측 주민들은 약속을 파기하고 또다시 학교 정문과 후문을 24시간 지켜서며 공사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시간을 두고 폐교, 글로벌타워(용두동 내 설립되는 장애종합복지시설) 등 다른 대안도 찾아보며 협의를 계속해나가자고 했는데 공단 측은 여기에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성일중학교 외의 공간을 물색하지 않으면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거다. 현재 반대 측 주민은 ‘성일중학교 내에 센터를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 계획을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학교 내에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 연령’의 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과 둘째는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립 비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들어와도 안 된다”며

장애인이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은 욕구조절이 안 되기에' 남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고등학생 연령의 발달장애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 여부를 떠나, 일단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이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격리하여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옳은가. 이들에게 안전이란 어떻게 경험되어져 왔던 걸까.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만 자신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험요소(그러나 이 기준조차 모호하다)를 배제한, 마치 무균실과 같은 청정 지역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어딜 가나 안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직 '이곳'에서만 안전할 수 있게 된다.**

**불행히도 이는
자기 삶의 영역을 축소하는 행위다.**

주민들은 위험의 근거로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상윤이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는 2014년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19살 중증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 상윤이를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교육청은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증 장애인만 온다고 수차례 설립 의

도를 설명해도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처음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중증도 받아들여서 성일중학교는 결국 '장애인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반대 측 주민들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차별받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묻는다. 이는 진행과정상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

그러나 하나의 물음을 던져보자. 민주주의는 자기 몫의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공적인 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균형을 맞추어줄 절차적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호출한다. 즉, 민주주의를 호출하는 목소리가 발화하는 곳은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 그 전제가 되는 공공성이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지향이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종종 다르게 변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나

의 목소리를 타자의 목소리보다 앞세우기 위해, 혹은 사적 발화가 공공의 가치를 우선에 둔 목소리를 내리누르기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일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대 측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손에 쥐고서 자기 목소리를 냈으나 공공의 가치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란 특정 대상이 빠진 제한적 영역의 닫힌 관계였다.

시작조차 못 하고 무산됐던 6차 주민설명회에서 한 반대 측 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울음이 뻔 목소리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왜 고등학교 아이를 감당하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길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욕구는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억울해한다.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이 언론에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에 가닿는 길이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제되어야 할 공공의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의견 수렴의 절차만을 요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 커리어월드 현장은 이를 또렷이 보여준다. 이들에게는 상대방과의 교집합(공공의 가치)이 없기에 끝없이 길항한다. 이들은 "이것이 민주주의냐"라고 물으며 자기 몫에 관해서만 주장한다. 그리하여 분하고 억울한 이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즉,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간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뿐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은 적이 있었을까. 앞서 6차 주민설명회에서 자기 자녀가 접하게 될 두려움을 호소했던 주민은 당시 이러한 발언도 했다.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 완전 무시하고, 너네는 못사는 동네에 사는 거니깐 그냥 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 성일중학교가 있는 계기동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학교 바로 앞엔 고가도로가 있으며, 학교 바로 옆 공간은 계기4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회 공동체로서
소속감보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들이는 사회적 결정을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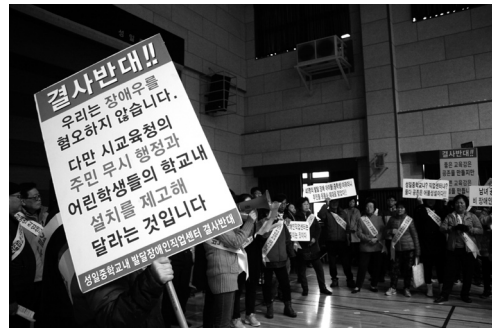
여기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도 스며있다.

그래서 커리어월드 사태엔 단순히 '넘비'라는 한 단어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 접점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 이 사회 공동체로서의 소속감보다 박탈감을 느낀 이들은 지금의 공간조차 지키는 게 힘겹다. 더는 상승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에서 이들은 추락이라도 막기 위해 지금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비단 여기뿐일까. “이게 민주주의냐.” 이 말은 오늘날 흔히 부유하는 물음 중 하나다. 이는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버티려했던 노력조차 공공의 가치라는 명목으로 무산될 때 하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공성이란 때로 사회가 가하는 배반이 된다.

이들이 속하고 싶어 하는 주류사회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등을 돌린다. 자력으로 가닿아야지 그곳이 먼저 손을 내밀진 않는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일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계단에 서 있다. 전체 계단을 아우르기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의 지반이 너무 약하다. 자칫하면 미끄러져 추락하는 이곳에서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내가 서 있는 부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는 없다. 지켜야 할 게 없으니 나를 지켜줄 울타리도 없다. 나와 당신은 울타리 없이 벌거벗은 채 부유한다. 이 살벌한 대기 속에서.

불안을 위무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제거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너무나 당연히도, 좁다. 결국 나와 당신은 울타리도 없건만 스스로를 가둔 좁디좁은 삶의 공간에서 까치발을 한 채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무너질 때까지는 무너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타자를 밀어낸다. 위협을 이유로 서로를 배격하고 혐오하는 모습이 어 느덧 사회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 이 글은 「비마이너」에도 실렸습니다.
<http://beminor.com>

【 고병권의 비마이너 】

장애인과 배낭
“장애인이란 배낭을 메지 않은 사람이다”

고병권

오랫동안 연구공동체 수유너머에서 밥 먹고 공부해왔으며, 이번 여름부터 무소속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다. 노들야학에서 철학교사로 지내왔고 최근에 잠시 휴직한 상태. 그동안 밀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으로 자기 충전 중!



죽은 사람의 미소는 살아있는데 산 사람의 걸음은 죽은 혼령처럼 흩어지는 아침 출근길
- 광화문능성장 1198일 아침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es)는 장애인에 대해 아주 이상한 말을 남겼다. “장애인(anaperous)이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배낭(pera)을 메지 않은 사람이다.” 배낭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무슨 기분 나쁜 아웃도어 제품 광고도 아니고, 왜 장애인을 규정하는 것이 배낭이란 말인가.

디오게네스의 말을 잘 뜯어보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 사회도 장애인, 다시 말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차별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가치가 담겨 있었기에, 디오게네스는 그 말의 용법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데아, 즉 이상에 관심이 많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상적 신체 기준에서 이탈한 장애인의 신체를 어떻게 보았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짧은 말에서 우리는 또한 디오게네스가 장애인에 대해 통념과는 다른 시각을 지녔음도 알 수 있다. 그는 ‘장애’를 신체적인 ‘손상’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들리지 않는 귀’나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니라 ‘배낭’이라고 했다. 왜 배낭이 문제인가. 배낭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는 철학자의 진리[진실]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배낭은 그런 ‘진실한 삶’의 상징이었다.

그는 작은 배낭만을 갖고서 길바닥에서 먹고 잤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개라고 불렀고, 그도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그는 왜 개였는가. 우선, 그는 먹고 마시는 일부러 섹스까지 모든 것을 남들이 보는 길에서 했다. 개처럼 말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자연적인 것이므로, 자연이 낳은 어떤 일,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연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도덕적, 법적 편견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니 바꾸어야 할 것은 이런 편견들이지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왕은
왕관을 쓰지만
진짜왕은
배낭을 멘다.

또한 그는 스스로 ‘인류를 주인으로 모시는 개’로서 소개하기도 했다. 나쁜 적을 주인보다 먼저 알아채고 용감하게 짖으며 적을 물어뜯기도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왕에게 잡혔을 때 그는 ‘누구나’는 왕의 물음에 “나는 네 끝없는 탐욕을 탐지한 정찰병”이라고 답했다. 그는 왕에게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인류의 정찰견 내지 경비견이었던 것이다.

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디오게네스는 ‘현실의 왕’을 ‘가짜왕’이라고 불렀다. 그런 왕들은 스스로 힘을 갖고 있지 않기에, 다시 말해서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기에, 왕관을 쓰고 군대와 신하를 대동하고 다닌다. 비유컨대 그들은 황금이 아니므로 자신을 도금한다. 그런 도금을 이용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위협하는 것이다. 그들은 왕이라기보다는 ‘환상의 왕’ 내지 ‘왕의 환상’이다.

그렇다면 ‘진짜왕’은 누구인가.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가리켰다. 삶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는 군대와 재산, 신하 따위가 필요 없다고 했다. 힘은 군대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그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이다. 그의 배낭은 이런 주권적 삶의 상징이었다. 가짜왕은 왕관을 쓰지만 진짜왕은 배낭을 멘다.

배낭의 의미를 좀 더 따져보자. 우선, 배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자립적 삶을 나타낸다. 배낭을 멘다는 것은 왕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예측된 채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사는 삶을 상징한다. 둘째로, 배낭은 울타리 바깥에서의 삶을 나타낸다. 그것은 울타리와 벽이 둘러진 곳(왕궁이든, 집이든, 시설이든)에서 나온 삶, 한마디로 길바닥에서의 삶을 상징한다. 길바닥은 추방된 자들의 공간이고 사회적 낙인을 받은 자들의 공간이며, 추위와 굶주림의 공간, 정신적 모욕과 모멸의 공간이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을 주권자로 단련시키는 공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다. 자신은 “추위와 두려움과 싸우고 갈증을 이겨내며, 채찍이나 칼, 불을 사용한다 해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낭을 멘다는 것은 전사로서, 투사로서, 기꺼이 길바닥을 단련의 공간으로 감내한다는 뜻이다.

삶의 주권자가
되기 위한, 아니,
이미 자신이
삶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투쟁 아닌가.

셋째, 배낭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이의 삶을 상징한다. 디오게네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인류를 주인으로 모시는 개’처럼 생각했던 인물이다. 길바닥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이유는 자기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역량으로 전체 인류를 돌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는 광장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편견과 악덕을 깨부수고,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진짜 왕’, 즉 배낭을 멘 자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디오게네스는 주권자에 대한 고대적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었다. 그가 떠올린 진정한 주권자란 자기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하며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왕이나 현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진정한 왕은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낭을 멘 채로 길바닥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투사였다. 자기 자신을 돌보며 인류를 돌보는 그런 투사 말이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의 규정을 다시 음미해보자. 그가 말한 ‘배낭이 없는 삶’이란 자립적이지 못한 삶, 누군가에게 예속된 채 살아야만 하는 삶, 자기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삶, 자기 단련이 없는 삶, 타인을 돌볼 수 없는 삶, 무엇보다 주권자로서 투쟁할 수 없는 삶을 의미한다. 디오게네스가 중시한 것은 누군가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과연 주권자의 삶을 사는가였다. 따지고 보면 지금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의 투쟁 모두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삶을 거부하고, 삶의 주권자가 되기 위한, 아니, 이미 자신이 삶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투쟁 아닌가.

지난 11월의 마지막 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다. 저 세종대왕동상 너머에는 ‘왕의 환상’ 내지 ‘환상의 왕’이 살지만, 여기 농성장에는 진짜왕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진짜 왕궁에 초대받아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좋은 시설은 없다

중~은 시설이 있다는 건,
중~은 군대가 있다는 말과 같다!!

이승현

2002년에 ‘민중복지연대’라는 단체의 상근자로서 최옥란 열사 투쟁, 이동권 투쟁, 에바다 투쟁을 함께하면서 장판과 인연을 맺었다. 그해 말 민주화 과정에 있던 에바다복지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 평택에 내려가 오랫동안 일했다. 2015년 5월부터 (사)노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전에... 에바다 시설 비리 척결, 민주화, 정상화를 외치며 에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목표는 아마 ‘좋은 시설 만들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시설 말입니다.



**1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난 단언컨대 ‘좋은 시설이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들에 와서 얼마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자립생활모델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자립을 지원하게 된 어느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이 밝힌 자립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을 자유를 위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짧고도 굵은 한마디의 말을 들은 후, 저는 군복무 시절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압받았던 군대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고, ‘좋은 시설이 있다는 말은, 좋은 군대가 있다는 말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흔히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군 복무가 끝난 사람, 군생활이 끝나가는 말년 고참들, 군 부대의 운영자인 장교, 그리고 군생활을 하는 자녀를 둔 가족들. 정작 본인만 힘들다고 하지요. 이런 군대와 시설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과도한 생각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좋은 시설이 있다는 말은, 좋은 군대가 있다는 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대를 끄집어 내지 않아도, 좋은 시설이 불가능한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 **첫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점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비록 ‘민간’재단법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거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치고는 독점이 너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지역사회로부터 외부이사 추천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래도 이사 정수의 1/3을 넘지 못합니다. 나머지 2/3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사들을 ‘자가 선출’ 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회 내부에서 다수파를 점하게 되면 이사의 추가적인 선임부터 시설장의 임면 등 법인과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틀어쥐게 되고 독점이 가능해 집니다.

저는 이런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기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재원인 국민의 세금을 민간의 특정 집단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복지전달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이 기형적이고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복지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둘째,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법인과 시설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운영법인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향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며, 그 정체성과 지향이라는 것은 법인 이사회의 다수파의 영향력 아래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당연히 운영법인의 그런 정체성과 지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장의 임면권은 물론,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권, 직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권한, 각종 규정의 개폐 등이 모든 것이 이사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회의 다수파들의 정체성, 지향에 따라 시설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시설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이 거의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그만큼 비상식적인 노사관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변하고 있고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노사관계의 유지에 전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대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구조조정 대상들입니다.

결국 사회복지법인들이나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수록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더욱 종속되거나, 시설운영을 통해 자부담 수익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이해관계는 거주인 가족들과 시설의 관계입니다. 사실 거주인 스스로 자발적 입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의뢰하고 입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사실 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서비스는 거주인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성격이 더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케어의 부담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짐을 덜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서비스 제공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설 입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시설 입소를 의뢰하는 사람도,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시설의 관계입니다.** 시설은 운영할수록,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시설이 노후될수록,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끊임없는 재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보조금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따라서 자원봉사자 확대, 후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언제나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뿐입니까? 반대로 지역사회의 돈 뜯겨나만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욕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시설과 이해관계를 형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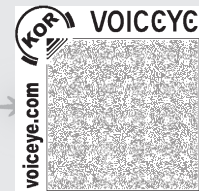


이렇듯 시설은 그 자체가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거대한 이해관계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는 언제나 법인의 존립,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표현되며, 거주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뒷전으로 밀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주인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통제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태생적으로 기형적인 구조, 독점이 용이한 구조 탓에, 시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해관계의 덩어리인

탓에, ‘좋은 시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설은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복지’를 내세워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기형적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



1017MHz, 빈곤철폐가 빛나는 날에

한명희

노들아학에서, 그리고 광화문 지하역사2층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명희예요. 놀러와요.

오프닝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에요. 작년 빈곤철폐의 날은 노란들판의 꿈과 함께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지요?

세상은 빈곤이 빈곤에 빠진 개인들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곤이 확산되는 불평등과 승자독식의 사회가 만들어내고 심화하는 사회문제라고 정의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10월 17일을 (칙칙.)빈곤퇴치의 날이 아니라, ‘빈곤철폐의 날’로 부릅니다. 올해도 빈곤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이들이 모여 <1017빈곤철폐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어요.

함께 많은 이들이 10월 17일 도심곳곳 거리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마석모란공원에서 빈곤철폐, 장애해방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가난과 차별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기

도 하였어요.(민중열사 묘역 참배, 추모제 10월 2일(금))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주거권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10월 5일(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회도 진행하였어요.(10월 14일(수))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들고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소개할 코너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모여 도심 곳곳을 함께 걸으며 선전했던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 행사의 풍경들입니다. 오늘 1017MHz, 빈곤철폐가 빛나는 날에 코너에서 유의해서 읽어주실 부분은 사진을 보며 선곡한 몇 개의 노래들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함께 살기 위한, 당신의 삶에 고개 숙여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실제 노래가 의도한 가사의 방향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빈곤사회연대

1



출발지는 동대문운동장 'DDP'입니다. 많은 노점상들이 청계천공사로 인해서 내쫓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이번 1017은 다양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시작하고 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첫 꼭입니다. 이날 우리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 김사월_접속

같은 곳에서 같은 속도로 심장이 뛰다면 / 당신의 꿈속으로 접속할 수도 있겠죠.
작고 어린 신 등에 나의 심장을 포개고 / 당신의 꿈속으로 신호를 맞춰 봤어요.

2



DDP에서 찌렁찌렁하게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구호들이 가득 적힌 병풍(?)을 뒤로 하고 대표단이 투쟁결의문을 읽으며 행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호들을 보고 있으니 마구잡이식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갔던 용산참사, 남일당 건물과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곧 1월이면 용산참사 7주기 추모날이네요.

🎵 루시드폴_평범한 사람

알다시피 나는 참 평범한 사람 /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올라갔던 길 이제 나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 난 어차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 울고 있는 내 친구여 아직까지도 슬퍼하진 말아주게 / 어차피 우리는 사라진다

3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구호들이 적힌 선전물이 다양하게 준비된 행진이었어요. 노점상 단속·강제집행 중단! 용역강패 해체!를 위해 중구청으로 행진단이 향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행진입니다!

🎵 2ne1_내가 제일 잘 나가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 내가 제일 잘 나가 (x4)

4



중구청으로 도착하여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로 쓰였던 방송차에 있던 우리의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입니다. 우리는 정말 당연한 삶의 권리를 외치고 싸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 옥상달빛_희한한 시대

그래도 세상 한 가운데/ 어차피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면 / 눈 뜨고 잘 듣고 목소릴 내보면 /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그리고는 천천히 살아가는 거지

못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
- 집에서, 거리에서,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 노점상 단속 · 강제집행 중단! 용역강패 해체!
- 신데레 유절거, 순회식개발 사정하러!
- 허울뿐인 노숙인 복지 개선, 공공주택 공급!
- 가진 자를 위한 공공영역 사유화 반대! 공공서비스 강화!
- 낚은임금, 쉬운애고, 평생 비정규직 확대! OUT! 재벌의 곳!
- 불평등심화! 복지파괴! 박근혜정부 규탄!

5



실제로 폐지를 줍는 분들의 리어카를 빌린 건데요. 행진을 하면서 다른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이거 버리는 거냐며 따라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 아마추어 증폭기_금지탑

아니, 아니, 아니에요~

6



일정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보신각 정리 집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 모인 우리들이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시다. 저도 그렇구요.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이 힘에 의해서 빼앗기고 짓밟히는 세상. 빼앗기는 것이 억울해서 거리에 나왔ая 소리라도 치고 약이라도 쓰면 떼쓴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돈으로 다른 삶의 공간을 당연히 뺏겨나 짓밟는 것은 당신의 썩은 내 나는 탐욕이며 타인의 삶을 모욕하는 것임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 싸이_좋은날이 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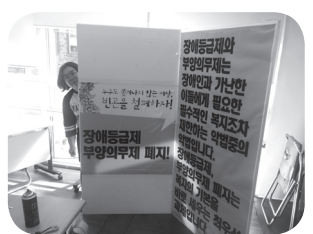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해야 하는 건 조심 / 세상을 알면 알수록 멀어져가는 건 조심 / (...) /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 / 욕심은 세월 앞에 장사 없지 /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건지 / 행복하고 싶는데 그게 뭔지 / 걱정 말아요 그대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생 다시 살어 / 좋은날이 올 거야

7



엔딩 그래요, 우리. 함께 좋은날 맞이합시다.

안녕, 내년에도 만나요. (노들야학에서 요구한 대왕 책자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턱턱턱’에 대해서 어디까지 당해봤나? 문전박대!

민아영

노들야학 8개월 차에 접어든 꼬꼬마 교사입니다. 한 학기 동안 불수레 영어반과 함께했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이 드네요. :) 좋은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모두가 그렇듯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떤가요? 먹고 싶은 것 먹으러 나가는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턱, 턱, 턱 때문인데요. 가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턱도 물론이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턱'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노들야학 학생들이 경험한 그 '턱'에 대해서!



○ **아영**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하는 일들, 우리 너무 쉽게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죠. 야학 주변에서 밥을 먹는 것만 해도 갈 곳이 제한되는 것처럼요. 학생들은 야학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하면서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 **상윤** 맞아요. 인도는 물론이고 식당 앞 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정자** 또 대부분 식당 문이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많고.

○ **아영** 그렇죠. 들어가기도 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식당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학에서 반끼리 밥 먹으러 가면 매번 ‘육갑’이나 ‘갑부집’ 아니면 ‘뽕꼬닭’ 요렇게 가고.

◎ **남옥** : 나는 가게에 접근은 할 수 있었는데 아예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 많다고 나중에 오라고. 뻘히 자리 보이는데.

● **진석**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건 식당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목욕탕에 갔었는데 손님이 많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아영** 목욕탕에서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 참 웃기는 목욕탕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 **진석**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전박대 당하는 경험은 저상버스에서도 했어요.

○ **아영** 일반 버스타 리프트가 없으니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리프트가 있는 저상버스가 그냥 지나친 건 문제가 있네요.

● **진석**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상버스를 탔는데 승객이 많아서 휠체어 타기가 복잡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승객이 엄

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 **아영** 특히 휠체어 이용하시는 학생들이 이런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 **진석** (끄덕끄덕) 그래도 덜 억울했던 건 버스 기사 나가서 승객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 **아영** 저상버스에 많은 인원을 태우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승객한테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옳은 일을 했네요. 하하 아무래도, 휠체어 이용하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어서 빨리 바뀌어야 할 텐데... 주원이 형은 어떠세요?

◆ **주원** 나는 차별 당한 적 없는데?

○ **아영** 음.. 그렇구나.. 하하.. 수연언니는 어때요?

✦ **수연** (한이 맺힌 듯) 어휴, 말을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최근에 동대문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 **아영** 동대문에서?

✦ **수연** 동대문 근처에서 활동보조인과 메밀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식당에서 사람은 2명인데 4인석 차지한다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 **아영** 와, 자리가 아예 없던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나가라고 한 거예요? 막 따지지 그랬어요.

✦ **수연** 짜증이 나긴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곳에서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잔치국수 먹으러 갔어요.

○ **아영**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투쟁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과 부딪히구요.

✦ **수연** 맞아~~!!

○ **아영** 그쵸 수연언니!! 하하. 만약 그런 차별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쟁해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잖아요! 정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이건 불법 행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디서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경기도 이동권이 엉망이라고 전해라

14시간 점거한 버스를 혼자 타고 집에 돌아오신 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 인터뷰

김유미

노들야학에서 일하며, 노들바람을 만들어왔다. 책꽂이에 알록달록 꽂힌 노들바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깜짝이야! 수족냉증 타파를 위해 산책에 열심이다. 내년엔 허기진 사람마냥 사 모은 책들을 다 읽어보려고 한다.

이 좋아 보이는
썩빡한
수입산 버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경) 국내 최초 2층버스 운송개시합니다 (축)”이라는 띠를 두른 2층짜리 버스 밑에 사람 둘이 들어가 쪼그려 누워있는 사진이 *특 단체 채팅방에 배달돼 있다. 서울시청 근처 광역버스 정류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601 버스 점거 중. 아침 8시 반쯤 됐을까? 10월 26일의 일이다.

어딘가 자랑찬 느낌의 이 버스는 경기도가 광역 입석 대란의 대안으로 마련한 2층짜리 저상버스였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시청 사이를 오가는 경기와 서울을 잇는 노선이었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고, 접이식 경사로가 달려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탈 수 있는 기똥찬 신식 버스였다. 그 버스가 자축의 띠를 떼지도 않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좋아 보이는 썩빡한 수입산 버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버스 점거는 종일 계속됐다. 그리고 밤이 되어, 또 다시 카톡방에 뉴스가 쏟아졌

다. 갑자기 버스 책임자들이 나타나 협상이 이뤄졌고, 이형숙 대표가 본인이 종일 점거한 버스를 혼자 타고 김포 집으로 간다는 소식이었다. 시트콤 같은... 음.

이 중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이형숙 대표님을 만났다. 본래 인터뷰를 할 계획은 아니었고, 그저 본인이 원고 청탁을 한다는 걸 잊은 탓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운동하며 받은 벌금을 청산하기 위해 12월 한중간에 자진 노역을 한다는 소식도 듣고 말았다.



○ **유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시청 근처에서 아침부터 점거 투쟁을 벌인 2층 광역버스를 혼자 타고 집까지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사건의 진위가 궁금합니다.

● **형숙** 그날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8시부터 차를 잡았으니까, 밤까지 14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거지. 나는 사실 아침까지 잡고 있고 싶었어요. 밤 10시가 넘어갈 때까지는 전혀 합의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버스를 삼일 정도 잡아놓자고, 그러면 이동권 예산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전혀 합의가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11시 30분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왔고, 이 사람이 다음에 날을 잡자고 하

나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나올지 끔찍했던
말이에요.

니까 모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지. 게다가 나는 집까지 돌아갈 차도 없고, 못 간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이거 타고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김포 가는 버스니까. 그리고 이 기사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나한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가자는 말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차에서 내리는 거야. 나한테 막 눈치 주는 거지. 나만 달랑 혼자 있었어요. 근데 나는 좀 허무하더라고. 아침부터 14시간을, 비 맞아가면서 동지들이랑 투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카톡으로 혼자 전세버스 타고 가는 기분이 어떻느냐 그러는데, 나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나올지 끔찍했던 말이에요. 게다가 이 저상버스는 구조상 휠체어 좌석에 들어가면 창 쪽을 바라보면서 그 상태로 계속 가야 해요.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김포까지 간 거지. 나는 이를 전에 장콜을 예약하지 않으면 일정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날 갑자기 다음날 10시에 수원에서 만나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죠. 당장 내일 아침이고, 나는 장콜 예약도 안 돼 있는데... 10시에 만나려면 아침에 7시부터 장콜을 불러야 해요. 그런 나한테 자꾸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이 버스 타고 가라고 하고, 집에 보낸 거예요.

○ **유미** 혼자 즐겁게 타고 가신 게 아니었군요. 그날 그 광역버스는 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 **형숙** 김포시나 경기도가 엄청 자량을 했어요. 2층 광역버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다, 그리고 그것이 저상버스이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의 입석 대란을 해결할 대안이라며 홍보를 많이 한 거죠. 김포에서 서울시청 가는 버스가 생긴 거니까. 김포시청에 버스를 갖다 놓고 홍보하고, 9월엔 로터리 한 쪽에 운행할 차를 갖다 놓고 시승식도 했어요. 그런데 시승식을 다녀온 활동가들 말이 버스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전동휠체어가 1대밖에 못 타고

자리를 돌려 앉지도 못하고, 전동스쿠터는 전혀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도에 이걸 고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선 휠체어 고정석 옆에 좌석을 두 개 빼면 될 것 같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구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개선하지 않고 운행한다면 우리가 차를 세우겠다고 업포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했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나 같은 경우는 시승식 하는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다른 형님들은 지금 우리가 차를 고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통했을 때 상태를 보고 움직이자고 했어요. 개선이 안 된 채로 운행하면 본인들이 차 밑에 들어가겠다고. 다수결을 통해서 두 번째 의견이 결정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확인해보니 10월에 버스가 개통을 했더라고요. 차는 안 고쳐져 있었고.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에 따라 한규선 소장님이 차 밑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엔 김포운수 차고지에서 차를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경기장차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들도 있으니 김포에서 하지 말고 서울시청에서 차를 잡고 투쟁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예전에 이동권 예산이나 자립생활 지원 문제로 관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유미**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 **형숙** 아침 7시에 집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버스를 안 타봤으니까, 아무도 버스 시간을 검색할 줄 모르는 거예요. 김포에선 출퇴근 버스라고 홍보를 했으니까, 그냥 감으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 버스가 분명 시청을 지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은별이가 '엄마 버스 앱으로 검색해봐' 그러는 거죠. 노선 번호를 치니까 바로 다 나오네요. 그렇게 아침 7시에 사람들이 다 왔어요. SBS도 오고. 앱을 보니까 이 차가 강서구 쪽에서 출발해서 올 때

개선이 안된 채로 운행하면 본인들이 차 밑에 들어가겠다고.

가 된 것 같은데, 차가 안 오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8시 10분쯤 되니까 드디어 차가 왔어요. 김포 동지들, 석암 동지들이 주로 있었어요. 아침에 모이는 거다 보니까 경기 지역 동지들을 많이 조직 못했어요. 대신 서울에 선수들을 조직했죠. 진수 형님, 규선 형님이 탈시설한 분들 중심으로 조직을 많이 했더라고요.

○ **유미** 출근 시간인데다 서울 한복판에서 종일 버스를 잡아 놓고 있었던 건데, 주변 시민이나 기사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 **형숙** 버스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가 종점이라서 사람들이 다 내리고 다시 타는 상황이었어요. 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우리는 어차피 뒤쪽 문 경사로로 움직이니까. 경사로가 가운뎃을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버스를 타겠다고 손을 흔들어서 세우니까 기사가 경사로를 펴주고 우리를 태웠어요. 그냥 타는 것처럼 타니까 첨엔 기사가 가만히 있었어요. 진수 형님이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스쿠터 탄 사람이 램프에 딱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와서 왜 그러는 거냐고 뭐라고 하고, 2층에 올라가 있던 비장애인 활동가들한테도 내려오라고 하고... 다른 승객들도 내리면서 한마디씩 하죠. 왜 그러냐, 우리 빨리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승객이 다 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뒤차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도 점거할까 말까 하다가 우선 한 대만 점거하자, 그랬죠. 그리고 한 한 시간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라고요. 우리가 김포사람이라고 김포시 교통과장이 왔어요. 생전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이 오니까 너무 웃겼어. 그리고 김포운수 사장, 버스 담당도 왔어요.

○ **유미** 그날 요구한 게 받아들여진 게 있어요?

● **형숙** 광역버스 개선에 대해선, 우리가 원하는 건 좌석을 두 개 빼는 거였

는데요. 근데 그 좌석 두 개를 빼려면 이 차가 만들어진 나라로 가야 한대요. 여기서 못하대. 이미 출고된 차들은 휠체어석 근처에 기동 같은 것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어서 이걸 개선하기로 했어요. 그 외에 앞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경기장차연과 확인해서 도입하기로 했어요. 또 이동권 예산 중에 현재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에 10%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30%로 높여서 지원하라고 요구했는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모든 구입하는 차량을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구입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남경필 도지사가 1년에 100대씩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폐차 차량만 해도 1년에 100대가 넘거든요. 이렇게 1년에 100대씩 해가지고는 저상버스도 입되는 데 100년도 넘게 걸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년 버스의 10%씩을 저상버스로 바꾸라고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선 그렇게는 어렵고 어쨌든 2015년 하반기에 상징적으로 저상 300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대중교통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에 경기장차연이 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도건 위원장이 들어가기로 했고요. 자립생활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체험홈 3곳을 더 지원하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 자립생활센터 지



원 예산도 높이겠다고 했어요. 또 최중증 외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하루 24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내년에 추경예산 같은 걸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얘기했어요.

○ 유미 서울에 꽤나 자주 나오시는데, 평소엔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 형숙 저희 집에서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장애인콜택시(장콜)를 타야 해요. 일정이 있으면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곤두서있어요. 장콜 때문에 못살겠어요. 이틀 전에 예약해놓거나, 즉시콜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즉콜은 오전 9시부터 운행하고, 보통 2시간 전부터 예약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9시 이전이나 밤 10시 이후엔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주로 이틀 전에 예약을 해서 움직이게 되죠. 수원, 용인 같은 장거리를 갈 때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놔요. 즉콜로 움직일 땐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 못한다고 해서 콜이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즉콜은 단거리 중심인 거죠. 경기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잘 돌아가야 하는데, 경기 31개 시군이 각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포는 김포대로 자기 룰에 맞춰서, 이천은 이천 룰에 맞춰서 각각 운영하니까 김포 장콜 타고 이천은 가요. 그런데 이천은 병원 가는 목적 같은 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못 보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계가 안 돼서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 유미 서울에 비해 경기도는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되나요?

● 형숙 사실 경기도가 2007년, 2011년보다 이동권이 많이 후퇴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에 2006,7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9년 정도면 대폐차할 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대폐

차 해야 할 시기가 온 건데, 폐차에 해당하는 차량이 저상버스로 도입되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장애인이 느끼는 건 저상버스 도입율이 더 줄어든 거죠. 13%에서 11%로 후퇴돼 있어요. 저희 집 같은 신도시의 경우 2011,2년엔 저상버스가 다녔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경로로 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집 앞에 오던 저상버스가 없어진 거지. 김포시 같은 경우도 2007년 저상버스 도입율이 37%나 됐던 적이 있어요. 김포시가 버스 유지비를 보완해주기로 해서 그랬던 건데, 그걸 1,2년 하다가 마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대로 도입율이 떨어졌어요. 예전 기사 찾아보면 김포시가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뒤로 안 하는 걸. 이게 전체적으로 지자체 31개 시군의 흐름인 거예요. 저상버스도 몇 개 노선에만 있고.

○ **유미**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계획인지요?

● **형숙** 남경필이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개똥같은 소리를 했지만, 바뀌야죠. 경기도는 경기장차연 거점 지역이 있는 데는 이동권이 조금 나아요. 그런데 경기장차연 거점이 없는 남양주 같은 데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인구가 80만이 넘는데 말이예요. 재정자립도가 높고, 좀 싸워볼 만한 지역은 연초부터 투쟁하려고 해요.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도 대준다고 하니까.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싸울 계획이고요. 자립생활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계속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계속 싸우는 거죠. 정말 엉망이에요. 우리도 서울처럼 이동권 선언하는 게 꿈이에요.

+ 서울시 이동권 선언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정류소 구축, 바우처 택시 도입, 서울시는 2015년 12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을 담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선포했다.

엄마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벌금 앞에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은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송실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좋아하는 건 도로점거.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한다. 많은 종류의 알바를 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니 뺨뺨.

머리카락까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에, 엄마가 감옥에 갔습니다.

지체장애 1급, 40대 후반의 휠체어를 탄 엄마는 지명수배자로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공공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시다. 용인시청 로비를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공공건조물 침입이라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엄마에게 가혹한 형을 내렸습니다.

나의 엄마 이형숙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입니다.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멋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어느 날부터, 엄마는 전업주부의 생활을 접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자

립생활센터의 소장을 맡고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아침 일찍 집 밖으로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한 번도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늦은 적이 없는 엄마. 항상 시간을 잘 지키려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 출발했습니다. 지난여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그린라이트 투쟁'이 아침 8시에 있을 때도 새벽 6시에 어김없이 집을 나서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게 되고 많은 차별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내게 들려줬습니다. 체육 시간에 벤치에만 앉아있었던 일들, 양변기가 없었던 학교에 앉아서 불일을 볼 수 없어 14시간이나 생리현상을 참으며 학교에 다닌 일. 아마 그가 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자립생활을 외치는



2015년 12월 21일 수원지방 검찰청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 자진노역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는 엄마의 친구들도 모두 담대하게 잘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벌금에 굴하지 말고 당당해지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엄마는 검찰청 안으로 흐르듯 들어갔습니다.

데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나의 엄마는 장애인 차별 철폐에 타협이 없고 자신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 보장 투쟁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재판과 적지 않은 벌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안일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재정은 상근자 한 명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서 함께 공공건조물 침입으로 벌금을 받은 활동가들까지, 5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종종 나에게 "이번에는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에 들어가야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벌금을 낼 수 있겠어."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해보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2013년 용인시에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약속대로 책정하라고 했지만,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조차도 정말 힘들게 얻어낸 것인데도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엄마의 친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무려 19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엄마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연행되었습니다. 8명이 연행되었고 총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선고한 법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꼭 벌금형을 내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용인시청에 들어간 것이 공공건조물을 침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엄마는 정말 공공건조물을 침입했나요? 무엇이 그런가요? 용인시청 로비 한 발자국만 들어가도 장애인들은 공공건조물을 침입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용인시도 법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권력으로 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00%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2013년 여름에 합의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연행해가고
결국 벌금까지 내렸습니다.

많은 활동가가 벌금 낼 돈이 없었고 결국, 엄마에게는 지명수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8명에게 500만 원입니다. 이걸 그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닐 겁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벌금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2009년 이동권 투쟁으로 800만 원, 2014년 노동절 연대 투쟁으로 500만 원 등 1,8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벌금이,
더 이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겁주고,
억박지르고, 누르는 권력의 탄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해서 교통약자들도 함께 이용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나의 엄마를 감옥에 보낼 만큼의 큰 '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1일에 엄마가 감옥에 입감된 후 구치소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옥에 엄마를 보냈겠습니까. 검찰청에 출두해 직원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던 우리는 겨우 잠깐이나마 눈빛만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화가 나 그 자리





【 노들아 안녕 】

유코디는요 

유지영



안녕하세요? ~(^^)~ 해피 바이러스, 긍정에너지가 넘쳐나는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판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유지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질풍노도(疾風怒濤)같은 10대를 보내고, 휘황찬란(輝煌燦爛)한 20대를 꿈꿨지만 특목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부푼 꿈과는 달리 단순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여자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대학 진학 권유로 ‘사회복지학과’를 알게 되었고, 잘 다니던 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자 22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이기적인 저에게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더 넓게는 내 이웃, 내 지역, 내가 사는 도시까지도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대학 생활 중 과대표와 레크리에이션 동아리 부장을 도맡아 하며 리더십과 유연성을 배웠고 성격 또한 유쾌, 상쾌, 통쾌하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센터 판 식구가 되기까지 영화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장애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사회봉사단 조교, 아동발달 상담센터 실장, 상조회사 총무, 중소기업 사무경리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배우고 겪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며 같이 울고 웃었어요. 그로 인해 변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일이 그에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센터 판을 두드렸습니다. 근무 첫날,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하며 활동가분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유쾌함으로 활동가분들과 함께 그린라이트를 켜고,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저를 보면 너무나 완벽 적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센터 판이 참으로 좋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행복전도사 같은 활동보조 코디네이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앞에 작아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려 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라도 그 경계선을 부수고 엄마를 다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고 힘내라고 얘기할걸.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그곳에 누워 잠도 들지 못할 엄마를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앞이 흐려집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활동가들을 계속 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별금

그럴 수 있도록 나는 엄마와 더 열심히
세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후원 계좌

301-0074-1215-61 농협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노들아 안녕 】

‘시원섭섭’보단 ‘시원불안’하달까

정민구



응답하라 2006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다. 난 오래된, 나이

많은 복학생이 되었고 내 이름 뒤엔 언제 붙었는지 모를 ‘응’자가 붙어 있었다. 군대라는 이름의 수용소에서 나오니 무한 조중에 사로잡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그런 효자 또 없던 시절이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다. 우연한 기회에 시범사업 중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알게 됐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활동보조를 하게 된 사람은 현재 현수막 공장에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대식이였다. 당시 대식인 노들야학 학생으로 불수레반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명실상부한 불수레반 에이스. 아니, 노들야학에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는 근육장애가 있어서 내가

옆에서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필기도 대신해야 했다. 난 그렇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계기를 통해 노들야학 수업을 듣게 되었다.

하루는 좌모 교사의 수학수업 시간이었다.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표정이었고 언뜻 보면 우왕좌왕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속도도 엄청 빨랐다. 분수 개념을 설명할 때의 일이다. 짧은 분필 하나를 집어 들더니 힘겹게 반으로 쪼갠다. ‘2분의 1’을 설명한다. 그리고 분필을 더욱 힘들게 다시 반으로 쪼갠다. ‘4분의 1’을 설명한다. 분필 부러트리느라 얼굴이 벌개지고 팔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며 학생분들이 까르르 웃는다. 나 역시 웃으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곳에 함께 있고 싶다.’

2006년 4월, 야학 에이스 대식이 검정고시를 보는 날이다. 다들 대식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야학에서 보기 드문 모범생이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나는 대식을 제 시간에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 없었다. 결국 1교시 과목인 ‘국어’시험을 아예 볼 수 없었다. 대식과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른다.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시무룩해 있던 나에게 홍모 교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가와 위로해 주며 던진 한마디에 난 9년 동안 야학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8월에 국어 시험만 보면 돼요. 정 그렇게 미안하면 야학 교사를 하던가.”

그렇게 해서 이듬해인 2007년 3월 야학에서 교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상근활동까지 하게 됐다.

응답하라 2008

노들야학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정들었던 정립회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마로니에 공원에 천막을 치고 2008년 1월 2일부터 100일 정도 천막야학을 했다. 낮에는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선전전,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밤에는 수업을 했다. 그리고 돌아가며 천막에서 숙식을 했다. 한겨울에 천막 안에서 잠을 자면 아무리 온몸을 꽁꽁 동여매도 코가 너무 시리다. 아침에 동태가 된 몸을 추슬러 근처에 있는 오모가리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천막야학이었다. 대학로에서 술 먹다가 천막에서 노숙인분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갔던 일, 한밤중에 발전기에 불이 붙어 119 소방차가 출동했던 일 등 하루하루

가 시트콤의 연속이었다.

사실 시트콤 같은 하루는 그 이후에서 계속된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됐고 술 한 잔 걸치면 이불 속이다. 그때 우리의 밤은 그 누구의 낮보다 길었다. 그렇게 노들은 내 인간관계의 전부가 되었다. 아니, 내 모든 것이 되어갔다. 그런 노들을 그만둔다고 하니 누군가 내게 물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쳤는데, 시원섭섭하겠어요?” 질문에서 두 가지가 잘못됐다.

먼저 청춘을 다 바치지 않았다. 청춘을 바쳤다는 말 속에 헌신이나 희생이 전제돼 있다면 난 ‘청춘을 바쳤다’기 보단 ‘청춘을 즐겼다.’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 봐도 나보다 청춘을 즐긴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시원섭섭’하지 않다. ‘시원불안’하긴 하다. ‘시원’의 의미는 내 앞에 백지로 남아 있는 2016년에 무슨 그림이든 그릴 수 있어 시원하고 같은 의미에서 불안하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짧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서른 살까지는 종종 상상해 봤던 것 같다. 하지만 마흔은 내 인생에 없던 숫자이다. ‘노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니 마흔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턱하니 나타났다. 마흔이 주는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면 9년 동안 노들이 선물한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노들인으로 남겠다.

ADIOS!

노란들판의 책모임 첫 발을 내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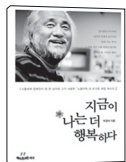
『지금 이 나는 더 행복하다』를 읽다



고수진

지난 8월, 노란들판에 입사하여 5번째 달을 보내고 있다.
조그마한 손을 분주하게 움직이며,
디자인을 아주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
사려 깊은 디자인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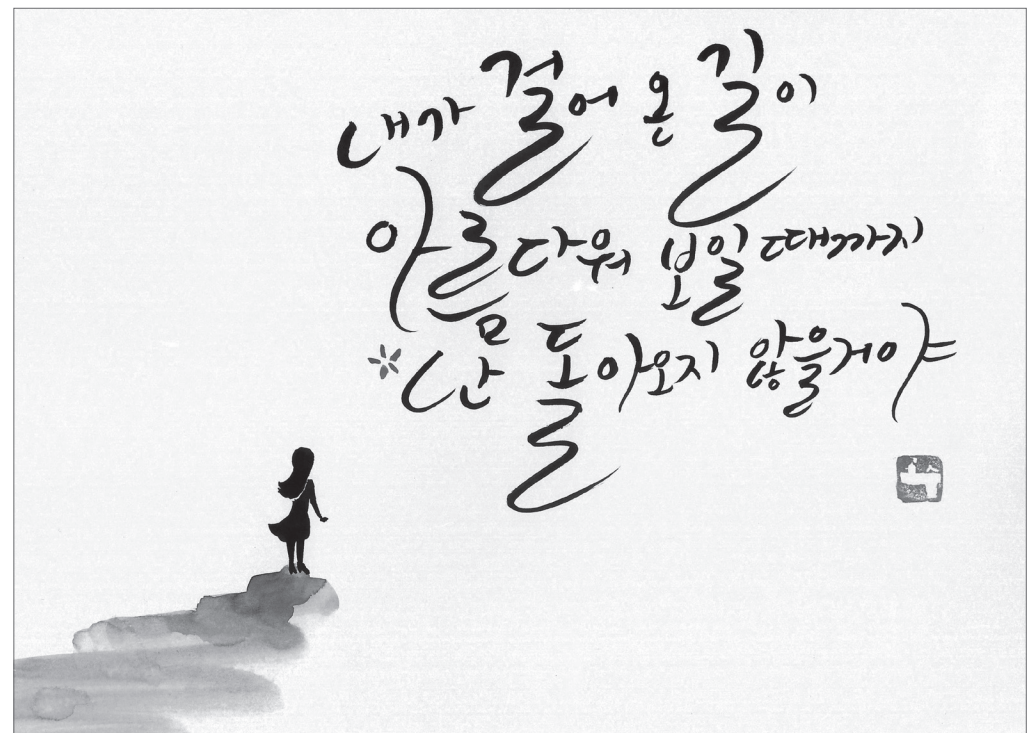
2015년 노란들판에는 세 명의 비장애인 입사자가 있었다. 새신랑 주훈 씨와 평균연령을 확 낮춰버린 막내 성희 씨,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나. 이렇게 박경석 교장선생님의 책 『지금 이 나는 더 행복하다』의 지난 책모임 후기를 쓰게 되니 서울잡스에서 노란들판의 채용 공고를 봤던 순간과 장위동에 면접을 보러 갔던 날, 석관동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지금 이 나는 더 행복하다』
박경석 저
책으로 여는 세상

사실 노란들판에 입사하기 전까지 노란들판은 물론이고 노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다. 노란들판에서 맞이한 첫 달. 박경석 교장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지금 이 나는 더 행복하다』를 받았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세상에 사인 위에 쓰여 있던 “우리가 희망의 근거입니다.”라는 말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신입 입사자들을 위한 노란들판의 첫 번째 책모임이 시작되었다.

노란들판에 와서 “처음” 들어본 단어가 참 많다. 나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익숙하지 않았고 이렇게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 야학도 노들도 처음에는 모두 낯설었다. 그 모든 실마리가 되어줄 이 책의 책모임에는 정팀장 님과 영인 씨, 올해 입사자 세 명이 함께했다. 정팀장 님은 EBS ‘지식채널e’에 나온 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였고 나머지 네 명은 책의 일부분



을 맡아 자신이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한 권의 책을 함께 나누었다. 함께 책을 읽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서로 나누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장소의 의미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책모임을 통해 나는 “우리”가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에서 “희망”을 느낀다. 이제 시작하는 첫 걸음이지만 확실한 방향을 향해 내딛는 기분이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는 지금, 노란들판에서 맞이할 내년을 기다리며 나의 작은 각오를 함께 남기고자 한다. - 내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 (이병률의 『끌림』) 12월 17일에 열릴 두 번째 책모임이 더욱 기다려진다.

노들센터에서 보낸 9개월

인턴활동을 마치며

김혜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것이 많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30대 김혜진입니다.
2013년 4월에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서 지금은 능숙하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친해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보통 자립생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시설에서 저는 많은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 살아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성격에 일일이 맞춰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여러 선생님들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를 너무 지치게 했고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되고 싶었는데, 마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 장애인 인턴제¹⁾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센터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의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턴으로 활동하다 보니 저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워드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과 함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활동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들센터의 활동보조 코디네이터가 되고자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인권강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인턴 업무 중에 특히 자립생활지원팀 회의는 저의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참석하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른 여러 회의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 실



제로 많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인턴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멘토 활동이었습니다. 멘토 활동은 탈시설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제 경험을 들려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입니다. 저는 보기와 달리 소심한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멘토 활동을 하다 보니 점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설에서 나왔을 때 멘토 분들에게 장보기, 영화관 이용하기,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을 배우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 또한 멘토로서 ILST(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서 좋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어떤 일을 시작하고도 끝까지 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매일 출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태껏 어떤 활동을 해도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선 지금에 와 돌아보니 지난 9개월간 같은 공간에 매일 출퇴근한 것만으로도 제게는 무척이나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태어



1)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곳에 중증장애인 1명이 인턴근무를 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했다.

나 처음으로 끝까지 해본 일이 바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턴 활동인 것입니다.

어느덧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립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용자로만 센터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때는 '센터'라는 단어와 공간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턴 활동을 통해 센터 식구들과 센터 활동가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부터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센터 식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점은 저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센터 활동가로 일하는 동안 저의 자립생활 경험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립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자립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멘토 활동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제 꿈이 저의 등대가 되어 미래의 자립생활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

End? And...!

무호아저씨와 함께 자립의 기쁨을 맛보다

김한준

2015년 2월 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콧수염을 길러보고 싶어 한 3주간 길러보았는데, 주변-특히 여성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길렀지만, 결국 종로구청과의 재협약(자립생활주택), 복지재단에서 사례발표 등 공식 행사에는 나의 몸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면도를 하긴 했지만, 꼭! 다시 한 번 멋지게 길러볼 생각이다.

무호 아저씨를 처음 뵈었던 때는 2015년 2월 11일 오전 10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주택1-가형에서였다.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를 처음 뵈었을 때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 차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기에 '과연 내가 무호 아저씨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급하지 않게 내 본 모습을 보여드리며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다가가기로 생각하였다.

무호 아저씨의 자립생활을 위한 욕구는 크게 3가지였다.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
2. 2급인 장애등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3. 임대주택 등 주택을 마련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것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어찌 보면 어려울 것도 같은 욕구를 이루기 위해 내가 지원해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물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그리고 아저씨가 함께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아저씨와 함께 부딪혀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무호아저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이었다. 활동



보조 시간이 월 130시간. 이마저도 3월 이후로 110시간으로 줄어들었기에, 활동보조인이 무호 아저씨 옆에 있는 시간은 고작해야 하루에 4~5시간. 오전 9시 ~ 오후 2시 정도였다.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는 길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아저씨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크게 8가지의 목표를 갖고 나와 아저씨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3월부터 시작된 동료상담. 실질적으로 아저씨에게 자립에 대한 조언 및 아저씨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았고, 다행히 추천을 받아 노원센터의 임형찬 국장님을 모실 수 있었다.

동료상담은 특히나 무호아저씨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았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아저씨에게 말동무 상대도 되어주고, 아저씨가 좋아하는 장기도 함께 두고,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4월 22일에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시간이 조금 흘러 7월. 전에 신청했던 장애등급 재판정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공단 측에서는 직접 실사를 나와 보지는 않고 무호아저씨에게 이런, 저런 의료기록들만 요구하여 아저씨의 자비로 비싼 검사들을 다시 받으며(MRI 촬영, 근전도 검사, 의사소견서 등) 제출을 했던 차였다. 하지만 우편으로 온 결과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등

급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공단 측에서는 현 장애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며, 더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를 주긴 했었지만 이런 결과를 막상 받아보게 되니 열심히 준비하셨던 아저씨도, 옆에서 함께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나도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단지 의료기록으로만 아저씨의 장애정도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국민연금공단의 행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센터 차원에서 함께 연대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현 아저씨의 상황 및 상태를 상세히 적어 논의에 부쳤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연대를 하며 2015년 8월 6일 장애등급, 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아저씨는 현 상황에 대한 아저씨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과 면담

및 장애 등급 판정 이의신청을 하였다. 담당자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다.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ILST)의 경우 위에서 목표했던 것처럼 집에만 계시는 아저씨를 최대한 밖으로 모시고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볼 계획이었다. 그 시작으로 수유동에 있는 4.19 민주묘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12일. 드디어 아저씨와 함께 서울 나들이의 첫 시작을 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에 방문하였는데... 이게 웬 일? 아저씨는 외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는 나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다. 난 외출준비를 전혀 하고 계시지 않은 아저씨의 모습을 보며 약간의 실망을 하고 따라 들어갔지만, 그 실망감은 1분도 되지 않아 환희로 바뀌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SH공사에 임대 주택 신청을 한 게 대기번호 3번이 나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이 당첨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것이다.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깟 외출이 문제겠는가?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나들이에 대한 ILST 계획을 임대주택 입주까지의 준비과정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퇴소절차, 집안 꾸미기, 전세금에 대한 것들 등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되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마련이 큰 급선무였다. 자립지원 정착금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돈은 완전히 자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에 그것을 기다리기에 큰 무리가 있어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대출이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아저씨가 찾아내셨다. 우리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찾아내신 것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로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매달 이자를 조금씩 내고, 2년마다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되는 그런 상품이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무호아저씨의 동생 분에게 빌리기로 하여 전세금 마련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

그후 이사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입주예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날짜를 정하고, 도배 및 장판은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고, 청소, 집안 가구나 가전제품 구매 등 한 단계를 밟아가며 준비를 하였다. 그렇게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이사를 앞둔 9월 24일, 아저씨가 함께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자립생활주택을 방문하였다. 그날따라 아저씨께서는 표정이 밝으셨다.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

'아저씨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시네요?'라는 나의 질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내게 추석 선물을 줬어. 이거 한번 봐봐.'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셨다. 나는 '국민연금공단이요? 뭘 바람이 불어서 선물을 했는데? 이런 데 쓸 예산 있으면 인건비 늘려서 현장실사나 더 열심히 하지.'라는 꾸민을 하며 그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봉투 안에는 전혀 뜻밖의 것이 들어있었다. '장애 등급 판정서'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흘려 내렸다. 그토록 원하시던,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계속 눈물이 났다. 너무 기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아저씨께서 올해 초 나와 함께 나누었던 아저씨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준비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계속 났다. 이제는 아저씨가 활동보조 시간에 쫓겨 일찍 잠자리에 들 필요도 없고,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계실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자립생활주택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식사를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0월 1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1-가형에서의 퇴소 및 개별ILST가 끝나는 날.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이사날짜를 하루 늦출까? 하고 아저씨에게 여쭙었지만, 아저씨는 '비 오는 날 이사 가면 잘산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믿고 이사를 진행하였다. 아저씨의 짐을 하나하나 빼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이 났었고, 마지막으로 입주자분들과 사진을 찍고 새로

운 시작이 될 목동의 아파트로 이동 이사를 마쳤다. 그리고 새롭게 이사를 한 그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아저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와 담당자의 시간은 끝이 났다. 그렇게 입주자와 담당자의 사이는 끝이 났지만, 이대로 무호아저씨와의 인연을 끝을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퇴소자 사후 지원을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저씨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함께 가을 나들이도 가고, 전체 입주자 모꼬지도 함께하고, 입주자-퇴소자 간의 간담회도 하며 여전히 노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무호아저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저씨께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원해드리고자 한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모두가 무호아저씨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무엇보다 나라

는 존재를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아저씨와 함께했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했고, 이 과정들이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내게는 너무 행복한 자리이자, 특별한 곳이다.



【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

기분을 배우는 시간



김나라

노들야학 학생인 장애경 씨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2살, 20살 두 딸과 17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외모와는 다르게 운동 마니아이기도 합니다.

저는 20년간 주부로서 남편과 아이 셋이 전 부인양 나의 세계에 몰려들어 살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

면서 지냈는데 대녀(이연옥)를 통해 봉사를 겸하면서 수입도 생긴다는 제안을 받고 막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았죠.

제가 생각하는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이용자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보조해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증장애 분들은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활동보조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사일과 사회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 일만 하려했지만 바깥일들이 많은 관계로 함께 동행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의 이용자 같은 경우는 노들야학에 다닐 뿐만 아니라 인권 강의, 생활체육인 보치아, 집회, 물리치료 등 함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야 할 경우에는 더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비를 챙겨야 하고 혹시라도 감기에 걸릴까 철통 준비를 합니다. 비를 맞으며 함께 거리 집회할 때가 힘듭니다. 몇 시간을 서있어야 하고 도움을 주

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만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이용자를 전동휠체어에서 내리면 옷 속까지 젖어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상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인권 강의며 멘토 역할로 짝짤한 수입이 생겨서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철만 이용하고 걷는 일이 많았습니다. 많이 편해졌죠. 더울 때 등이 젖도록 걷다보면 나에게 최면을 걸죠. 살 빠라고, 운동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하구요. 추울 때는 또 어찌구요. 남편은 건물 안에서 기다리다가 부를 때 가면 된다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얼 위해 투쟁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면 저조차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의 제 일을 즐기려합니다. 이 생활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지 않았더니 저는 기분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을 배우는 시간은 고되게 느껴졌지만 그 시간조차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분을 배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죽으면 아버지 만나서 따져봐야겠어요

노들야학 이영애 학생 인터뷰

정민구

손재주는 없지만 손으로 무엇이든 만들고 싶어 하는 민구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영애누나를 만나 지금의 심경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영애누나는 야학 청솔2반 학생입니다. 최근엔 인권교육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밍구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지금 마음은?

영애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래요.

밍구 아버님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영애 중풍. 중풍으로... 재작년부터 안 좋아지셔가지구요. 재작년 여름엔가? 8월 달에 쓰러지셨어요. 그날 저녁에 술 약간 취하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한 쪽 못 쓰시는 거예요. 말도 못하시고. 그러려니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고 뭔가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찾으냐고 하니깐. 말도 안하고 막 한 손으로 찾고 그러셔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깐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옆에 침대 방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데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빠가 바지를 벗으시고 볼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밍구 방에서?

영애 네. 엄마가 이게 뭐 일어나고 놀라서 가봤는데 역시나 아무 말도 안하시고 볼일 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다 치우시고... 건대병원에 갔는데 중풍이라 그래서 입원하시고 그러셨어요. 영 못 일어나시고. 몇 개월 지났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몇 달 계시다가 12월 달에 퇴원하셨어요. 밥을 안 준대요.

밍구 환자한테?

영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그냥 미음. 미음을 주사기로 넣어주고 그런대요. 간병인이 안 주고 막 그런대요. 대변보는 것도 안 치우고. 그래서 욕창도 걸리시고... 한겨울에, 12월엔가 퇴원하셨어요. 엄마가 간병 다 하시고. 그렇게 조금 나아지셨다가 올해 또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쓰러지셨고 병원에 또 가셨죠. 건대 병원에. 진찰 받았더니 다리에 중풍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도 수술하셨고 그 다음부터 더 못 일어나시고. 그러다 몇 달 후에 퇴원하셨고 또 병원에 가셨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밍구 음... 그러니까 중풍이랑 치매가 같이 오신 거네요? 아버님이 연세가...

영애 아버지 돌아가신 때가 88세요.

남남처럼 정이 없어요

밍구 아버님 살아생전에 누나하고 관계는 어떠셨어요?

영애 별로 안 좋았죠.

밍구 누나 시설에 보내려고 하신 게 아버님이셨어요?

영애 아뇨 엄마.

밍구 아버지는 (시설에 가는 걸) 막는 입장이셨어요?

영애 동생도 뭐 오빠도 정이 없고, 아버지도 정이 없었고, 엄마는 더욱 정이 없었고...

밍구 그러면 누나 입장에서 더 불안할 수 있겠다. 아직도 시설에 가라고 그러세요?

영애 아니요. 그 전에 작년엔가? 성동센터 '자립생활 체험홈'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밍구 그래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영애 아니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셔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해서, 아버지 나아진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저렇게 돼서 더 못 나가죠. 올해 11월 달에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밍구 어머니가 자립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영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시니까.

밍구 그러면 누나한테는 이제 시설 가란 그런 이야기 안 하시겠네요?

영애 안 하시죠. 내가 갈까봐 대성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나마 내가 있고, 정숙 씨(활동보조인)가 왔다 갔다 하시니깐... 정숙 씨가 살림 다 하시고 그러세요. 밥도 다하시고.

밍구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영애 아버지 병원에 데려다주시고, 어무니 병원에 데려다주시고.

정숙 오래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밍구 아이고... 영애누나 활동보조 분이신데 살림까지... 영애누나가 중간에서 지켜줘야 돼요. 활동보조 분을. 너무 힘들지 않게. 지켜 줘야 돼요. 누나가. 중간에서 카바 좀 쳐줘야지.

영애 쉬시라고 해도 자꾸만 일만 하시니까.

밍구 ㅎㅎㅎㅎ. 쉬라는데 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좀 쉬세요.

정숙 왜 그런 이야기 할 해. ㅎㅎㅎ. 어우 더워.

밍구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영애 안 좋죠 뭐.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우선은 머리가 아프셔서 어지러우셔서 잘 못 걸으세요.

밍구 그래서 더 의지할 사람이 누나밖에 없구나.

영애 오빠는 같은 집 밑에 살아도 안 올라오고. 오빠가 경비 일을 하거든요. 하루 자고 오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동생도 청주에 멀리 사니까 잘 못 오잖아요. 자주 올 수 없으니까. 애들도 유치원 다니고 동생도 보험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연락도 잘 못하고 오고 싶음 맘대로 오는 거리가 안 되잖아요. 오빠도 안 오고 올케언니도 안 올라오고. 오빠 딸도 다 대학생이예요, 둘 다. 소가 닭 보듯이 하니까 그러고 지내요.

밍구 힘들죠. 누나한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애 그냥 뭐. 남남? 남남.

밍구 남남? 관심 없는? 서로 관심 없는?

영애 재작년엔가 제가 체해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엄마 보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보고 체했는데 무슨 병원에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때 (조용필) 콘서트 가기 전에 아파가지고. 콘서트는 못 가게 됐는데 그때 재수 없게 체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약이 안 넘어 가요. 약만 먹으면 토하고 정 못 견디겠어서. 너무 죽겠어서 엄마한테 정숙 씨 좀 전화해서 오시라 그래라... 너무 죽겠어서. 눈이 넘어갈 정도로... 정숙 씨가 저 보고 엄마한테 화냈어요. 왜 이때까지 이렇게 놔뒀냐고. 정숙 씨가 건대병원에 데려가 주셔가지고 링거 맞고... 아버지가 병원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병원비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워서... 어후 내가 그때 어찌나... 무슨 부모가 이러냐 속으로 막 욕했다니깐요. 그러가지고 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웬수만도 못한.

밍구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그러셨어요?

영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장티푸스 앓았을 때 병원도 안 데려갔다니깐요. 엄마는 병원에 데려 갔는데 전 안 데려갔다니깐요.

밍구 아버님한테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영애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부모가 아니라 웬수야 웬수. 그래서 그 설움이 아직도 있어요. 엄마한테고, 아버지한테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 때 선생님 보셨잖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거 보셨잖아. 나도 못된 사람인 거 아는데... 나도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를. 엄마가 저보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동생하고 엄마가 들어 오길래, 나 안 간다고 그랬어요.

미운 아버지의 장례식

밍구 아... 누나가 안 간다고 하신 거예요?

영애 네. 안 간다고 그랬어요.

밍구 나는 또... 누나만 빼놓고 계신 거예요. 소식 듣고 그날 병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나만 빼놓고 장례식장을 오셨나보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야학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영애누나가 와서 계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부러 누나를 안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애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날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안 간다고, 장례식장 안 간다고. 진짜 안 갈라 그랬는데 야학 교사나, 학생 아니었으면 저 진짜 안 갔을 거예요. 야학 선생님 봐서 갖지...

밍구 그래도 기분이 좀 묘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움도 있지만 사실 애증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화장하셨어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영애 전 그때도 눈물 안 흘렸어요.

밍구 지금도 그러세요? 아직도 미운 마음들이 크세요?

영애 그렇죠. 크죠.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밍구 전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마음들을 털어버리시는 게 누나가 훌가분할 것 같긴 한데...

영애 그게 맘대로 안돼요. 어릴 때부터 어무니랑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구. 그게... 뼈에 사무쳐?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깊이 박혀서 그게 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안 없어지고... 아마 죽어서도 없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아버지 만나서 따져봐야겠어요.



자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 밍구** 내년엔 자립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 좀 나아지시면...?
- 영애** 근데 수급자가 안 돼서... 제가 체험홈 갈라고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시월 달인가? 구청직원이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부양의무제 때문에 안 된대요.
- 밍구** 집이 자가죠?
- 영애** 네 엄마 때문에도 안 되고, 집 때문에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 밍구** 실상 수급권자가 되지 않으면 체험홈을 나온단든지 이러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 영애** 그렇죠. 생활비가 없잖아요.
- 밍구** 장애연금이라고 해봤자...
- 영애** 겨우 30만원밖에 안되는데.
- 밍구** 아... 부양의무제가 누나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 영애** 예. 그러니까요. 부양의무제 아니면 벌써 수급자가 돼서 들어가고도 시간이 남았을 텐데...
- 밍구** 아버님이 누나한테만 그렇게 쫓 무관심하고 그랬어요? 아님 가족 전체한테 아버님이 좀 그런 편이었어요?
- 영애** 저한테만.



- 밍구** 누나한테만? 그러면 더 섭섭했겠다. 뼈에 사무칠 만하네.
- 영애** 옛날에 제가 장티푸스 땀에 너무 아파서 울고 막 그랬을 때 광에다가 가둬놨어요. 광에다가. 겨울에는 마당에다 내팽겨 치고, 집어던지고, 내가 식구들 안 미워하게 생겼어요?
- 밍구** 광에다가 몇 시간 가둬놓은 거예요?
- 영애** 네. 울지 말라고. 근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잖아. 아파서 우는데 어찌라고. 신경안정제 먹어도 안 들었어요. 그게 하루에 세네 번 먹어도 중독이 돼가지고 안 들어.
- 밍구** 세네 번이나 드셨어요? 그 독한 약을?
- 영애** 그러니까. 그 때 생각하면 난 또 피가 거꾸로 솟아.
- 밍구** 그 생각하지 마세요.
- 영애** 그러니까 왜 물어봐!!

엄마와 조용필 콘서트 가요

- 밍구** 미안해요.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잘 지내세요?
- 영애** 내일은 엄마하고 콘서트 가요.
- 밍구** 오우 진짜? 누구? 조용필? 아 진짜 내일이에요? 어디에서 하는데요?
- 영애**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 저하고 엄마하고 정숙 씨하고 그다음에 외사촌 오빠하고, 네 명이서 가요.
- 밍구** 카... 좋겠다.
- 영애** 제가 엄마 데려가는 거예요.
- 밍구** 엄마랑 가는 게 처음이죠?
- 영애** 네. 엄마가 안 갈라고 그러는 걸 막 서운하다고 했더니 같이 가기로 했어요.
- 밍구** 너무 뿌듯하시겠다.
- 영애** 콘서트 가서 딸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 거 너무 부럽고 저도 보기 좋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처음엔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막~ 뭐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신대요.
- 밍구** 누나 효녀시네~
- 영애** 효녀는 무슨 효녀. 진짜 효녀가 들으면 따귀 맞아요. 효녀씨이나.
- 밍구** 효녀지~ 엄마 모시고 콘서트도 가시고~ 나도 한 번도 못해봤다.

- 영애** 그전에 한번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간다고 그러가지고 저랑 활동보조인이랑 같이 갔었는데.
- 밍구** 근데 올해는 어떻게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표도 다 누나가 샀어요? 돈 꽤 많이 들었겠다.
- 영애** 59만원 들었어요. 넷이 네 명이서 같이 가는데.
- 밍구** 어우~ 돈 많이 쓰셨네.
- 영애** 네. 근데 안 아까워요.
- 밍구** 워낙 누난 조용필 팬이니깐.
- 영애** 더더군다나 엄마랑 같이 가니깐 안 아깝고 더 좋아요.
- 밍구** 그렇죠. 살아생전에 잘 해드려야 나중에 후회가 안 되고 그러죠. 잘하셨어요. 쓸 땐 써야지. 계속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 영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 밍구** 그리고 뭐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누나를 위해서 아버지 놔줘요. 이제 천천히.
- 영애** 아이고!! 이제 진짜 그만 이야기해!! 언젠간 놔지겠쥬 뭐.
- 밍구** 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쥬.
- 영애** 시간이 약이겠쥬 뭐. 시간이 약이니깐. 언젠가 놓을 날이 있겠쥬.



【 형님 한 말씀 】

「2015년의 끝 자락에서」
 노들 김명환 (노들야학에서
 2015년이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어그제 같았는데 벌써 그 끝 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로 빨리 갑니다. 매년 느끼지만 나이가 먹을 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무슨 까닭 일까요? 우리들은 올 한해 동안 많은 투쟁들을
 했습니다. 그 투쟁들 중에서 특히 생각이 나는 투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투쟁은 교차로에 초록색 불이 켜지면 쪽 교차로에 나가서 현재 우리들이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투쟁입니다.
 그 제목이 「그린 라이트를 켜주세요」입니다. 95일 동안의 투쟁. 뜨겁게, 뜨겁게 우리
 들은 서울 곳곳에서 투쟁들을 전개 했습니다. 그 투쟁을 하면서 운전자, 승객
 분들에게 솔한 욕들을 얻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투쟁을 했습니다.
 한 편으론 그 분들이 야속 했습니다. 그분들은 고작 몇 십분을 못 참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해 내는 광경들을 보면 그분들께 반문 하고 싶은 것이 있습
 니다. 당신들은 고작 그 몇 십분이지만 우리들은 몇 십년을 사선이나 집에서 자
 유롭게 이동을 못 하면서 그렇게 살아 왔고. 이런 것들을 당신들은 알고나
 계시나요? 아무리 당신들의 처지가 안나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지요.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들의 처지였다면 그렇게 까지는 하시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씨에도 우
 리들은 그렇게 95일 동안 「그린 라이트를 켜주세요」 투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투쟁의 이런
 참 뜻을 아시고 함께 주려를 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니, 우리들은 한
 편으론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지하보
 도 무기한 농성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 없이 시민들에게 서명
 도 받고 우리들의 목구멍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농성이 어떤

삼년이 넘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우리들의 욕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농성이 삼년이 넘어 습니다. 삼년이 넘었지만 그 끝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들은 끈기 믿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가 분명히 오야. 말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변함없이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면서 광화문 농성장을 사수 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반드시 쟁취해야 하기에 한 치 흔들림 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을 삼년 넘게 투쟁 하시느라고 동지들 많이 쇠 하셨습니다. 우리함께 2016년 새해에도 힘차게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쟁취한 광화문 농성장을 사수 합시다. 동지들 새해에는 늘 건강들 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뜻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투쟁 결사투쟁!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하리다」
2015년 12월 10일 김명욱 드림.

다녀와서... 장애해방열사배움터에

「장애인의날 열기 - 10월 11」

2015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애해방열사 단에서 주최한 장애해방열사배움터에 참석하였다. 매주 목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배움터의 주제는 1강 '왜 추모해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장애운동으로 헌신하다가 떠나신 선배 장애인들의 삶을 통해 장애운동의 역사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여러 명의 열사들 중 내가 유일하게 잘 알고 친분 있었던 이현준 열사의 삶에 관한 강의를 듣는 시간도 있었다. 200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이현준 열사와 함께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현준 열사는 근육장애라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있지도 않았고, 단 어조차 생소했던 지적,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도입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였다. 이현준 열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 시절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전이라 이현준 열사는 항상 사비를 들여서 활동보조인을 스스로 구해야 했다. 그러나 장애가 많이 심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증장애로 인해 치열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현준 열사는 2005년 전동휠체어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센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현준 열사가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리고 강의 주제 중에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을 방문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2012년 센터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배웠던 정태수 열사의 묘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장애열사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열사들의 삶과 정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고, 열사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센터 식구들과 함께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조재범

장애인지원센터사업팀에서 동료상담과 자립생활기술훈련(ILST)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탓인지 저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



마치고 장애해방하기 기록

[장애인의 목소리 - 12월 21]

무더위도 사그라지고 가을인가 싶을 시월에 장애해방 학교가 열렸습니다. 궁금함과 설렘으로 익숙한 장소인 노들야학으로 갔습니다. 낯익은 얼굴들과 설은 얼굴들 다소 어색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장애인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이진경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해주셨다. 제목조차 어렵고 생소해서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본의 흐름과 거기서 벌어지는 노동의 행태와 착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강 해주셨고 어려운 말이 많아서 다소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조현수 활동가님께서 강의해주셨다. 장애등급제의 역사와 장애인복지법. 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폐지되었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늘 궁금했지만 어렵게 느끼던 부분을 듣게 되었고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다 숙지되지 못해서 틈틈이 교재를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장애인에 대한 이해-장애와 장애인권의 사회적 이해에 관해 장애인론 비마이너 발행인이고 노들야학 선생님이신 김도현 활동가님이 강의하셨습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규정짓고 있는지에 대해, 300년 전에 왜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형성 되었는지에 대해,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국내외 실제 사례와 장애인복지법의 시초인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다양한 비유와 사례들을 통한 강의에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손상"이란

박정숙

노들야학 한소리반,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활동가

단어가 장애를 지칭하고 그 안에 차별과 억압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 시간이었지요. 듣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려운 부분들은 강의 교재가 잘되어 있어서 자주 보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날. 소수자 인권 운동과 장애인 운동, 다섯째 날 왜 탈시설인가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좋은 강의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다 참석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여섯째 마지막 날 진보적 장애운동의 미래와 전망에 관해 노들야학 교장선생님이시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신 박경석 교장선생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장애운동의 전망은 시혜와 동정을 걷어치우고 권리의 시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시작된 강의는 중도에 장애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투쟁하고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듣고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차별과 장애인을 낙인화 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생명을 던져, 투쟁하는 동지들의 결의에 찬 눈빛과 몸짓이 그 가열찬 투쟁이 활동보조인 제도를 만들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거리에 턱을 부수고,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바꾸어가기 위해 외치고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석이 있어서 수료증 받기가 부끄러웠지만 다음 년도에 꼭 다시 참석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노들에 오기 전에는 장애인으로 이 사회에서 살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고 포기한 것들도 참 많았지만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당당하게 외치고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하고 유익한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휠체어축구, 들어보셨나요?

유럽엔 축구팀만 300여개, 월드컵도 열린다네~

모경훈

서울전동휠체어축구협회 사무국장이자 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사업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중맞고 귀여운 사랑스런 은서 우리 딸과 11살이나 어린 보석 같은 진주를 아내로 둔 겁 없는 남자이고 상 도둑놈으로 불리고 있는 모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사업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경훈입니다.

이번에는 전동휠체어 축구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올 한해 전동휠체어 축구팀들의 활동했던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울전동휠체어축구협회



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속인 드래곤팀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을 그만큼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ㅋㅋ

전동휠체어축구 종목으로 유럽에는 300개 정도의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명을 붙여 전동휠



체어축구연맹으로 활동하며 피파(FIFA) 산하기관으로 전국전동휠체어축구연맹이 존재합니다. 4년에 1번씩 국가를 달리하여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고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일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축구는 남녀 혼합으로 4대 4로 전후반 20분씩 나누어 진행합니다. 한 팀에 골키퍼 1인, 수비수 2인, 공격수 1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 경산, 전북, 속초, 강원외 한 팀씩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은 2팀, 서울은 4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정립회관에서 전국 대회 출전권을 걸고 드래곤, 파워테란, 서울fc 미르, 오마이갓 팀들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의 도움으로 결전을 벌였습니다. 신생으로 생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속인 드래곤팀이 기존 팀인 파워테란, 오마이갓팀을 제치고 1위 우승을 했으며 2위 파워테란, 3위 오마이갓팀이 전국 대회 출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20일 1박 2일로 부산 요트경기장 부대시설에서 전국 대회가 열려 서울을 포함

하여 9개 팀들이 참가했습니다. 충실하게 연습한 서울 성북구를 대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속인 드래곤팀이 아쉽게도 4위를 했지만 신생으로 만들어진 팀치고는 좋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전국 제패를 해보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판에서 연극으로 경계를 허물다

병명 : 장애인에 대한 편견

처방 : 장애인문화예술관 공연 관람



≡ 미나

내가 태어나 돌이 막 지났을 무렵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아빠를 평생 보며 살아 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장애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내겐 '우리 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내 생애 가장 많은 장애인들을 만난 장애인문화예술관에서의 1년. 판에서 보낸 지난 1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경계를 세삼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판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며, 미나.

1년 전, 판에 처음 왔을 때 좌 대표님이 내게 판 업무를 익히라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던져 줬다, 사실 '일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대충대충 건성건성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 이게 바로 장애인문화예술관이구나!'하고 내 머리를 한 대 쥐어박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자립예술 프로젝트의 1년차 교육 결과물인 '러브 러브' 공연이었다.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네.'

어느새 삐딱했던 몸을 일으켜 정자세로 고쳐 앉아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집중력으로 공연 영상을 보며 '생각보다 잘하네' 하고 판단하는 내가 있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각보다 잘한다'고 여겼던 것일까? 흔히 교과서 혹은 고리타분한 발제문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란 놈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깊게 탑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연극을 한다고? 그냥, 그렇겠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뭐. 이런 생각들. '그랬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 참 오싹했다. 세상의 많은 편견들과 '안녕'했다고 착각하고 잘난 척하며 살고 있던 내 안의 어둠을 적나라하게 봤으니 오싹할 수밖에. 한편으로는 '이런 판의 배우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볼 생각에 들뜨기도 했다. 작년에는 이렇게 멋진 공연을 만들었는데, 과연 올해는??? 얼마나 더 멋진 공연을 만들게 될까??? 하고 말이다.

시간은 구름과 같이 흘러 어느새 장애인문화예술관에는 공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다.

장애인 극단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다면 큰 굶 다친다고!

<이 동네 개판이네>로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관 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이 동네 개판이네>는 장애인들이 항상 집에서 빈둥거릴 거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극단 판 단원들이 연극을 만들고, 사물놀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울다가 웃는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비장애인 연출이 장애인 배우들을 가르치러 왔다가 배우고 돌아간다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동네 개판이네> 공연 안의 극이었던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기한 고고(서훈), 디디(김진옥), 포조(임은영)와 럭키(금민정) 네 배우의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동네 개판이네> 공연 사진 (왼쪽부터 디디, 고고, 럭키, 포조)

공연이 끝나고 한 관객이 배우에게 매우 들뜬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우와. 저 사실 장애인 극단이라고 해서 별 기대 안하고 왔는데,
오늘 공연 너무 멋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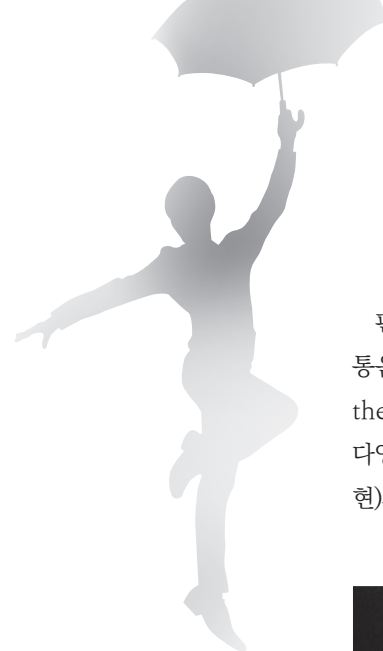
10월에는 작년 <러브러브> 공연을 했던 자립예술 프로젝트 2년차의 결과물인 통합예술 <심장이 뛴다> 공연을 했다. 연기에 집중했던 작년과 달리 영상과 무용 그리고 연기가 어우러졌다. 1년 동안 배우들이 만든 이야기들로 구성된 극과 배우들이 직접 만든 무용을 선보일 수 있었던 통합예술공연 <심장이 뛴다>의 관객 후기는 더 큰 감동과 울림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감동이었어요. 내년 공연도 기대돼요.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표정, 대사, 움직임 다 환상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from 노들 장애인 야학)

관객들의 관람 후기를 읽으며, 내 가슴도 뛰었다.



▶ 통합예술공연 <심장이 뛴다> 공연 사진



판의 2015년 마지막 공연은 <이 지독한 삶이여, 다시!>이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재해석해 실험적인 창작음악을 만들고 공연하는 창작음악그룹 the툰과 국내외 20여 개국에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동작업으로 내공을 쌓아 온 연출가 리지프로젝트 대표 리지(이지현)와의 앙상블이 환상의 하모니를 그려낸 음악극이다.



▶ <이 지독한 삶이여, 다시! '유래한씨의 운수좋은 날'> 공연 사진



영국의 장애인 운동가 핀켈슈타인(Finkelstein, 1993)은 문화예술이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 사회적 이미지인 <자선의 대상, 비극적 장애인의 이미지 혹은 인간 승리의 신화>를 벗겨내고 인간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판 배우들의 공연은 핀켈슈타인의 주장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공연이었다. 그래서 어느 관객의 말처럼 내년이 더욱 더 기대된다.

혹시 주변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이가 있다면, 장애인문화예술판의 공연을 처방해 주는 것은 어떨까? (단, 주로 9월 이후 연말에만 처방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인내심을 요함.)

사라진 주말, 멘봉의 연속 그리고...

미디어아트 '줄탁동시'에서 뭔가를 하얗게 불태운 이야기

강미진

저는 편의점과 바나나우유를 사랑하고
요즘 하루키 소설에 푹 빠져 사는 34살의 꽃 처녀 미진입니다.



난
준비한 모든 걸 다 보여줬어
하얗게
내 자신을 불태웠어

시선(장애인노래패)에서 활동하면서 미디어아트가 장애인이 활동하는 극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극을 준비한다는 정보도 듣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스텝으로 도와달라고 하기에 시선의 신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 주 주말에 오디션 비스무리한 걸 봤고, 사진을 찍었고 그 뒤 내 주말은 없어졌다.

내가 연극 준비를 시작했을 때에는 스토리와 모든 역이 다 정해져 있었다. 난 마치 깎두기 같은 느낌으로 원래 스토리에 없던 활보역(이름도

처음에는 활보역의 비중이 아주 작았다. 까메오라고 생각될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대사와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이 많아졌다. '내가 소질이 있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잘해야지.'라고 점점 내 자신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 좋았던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이 없어져도 줄탁동시 멤버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본 리딩을 잘한다는 칭찬도 듣고... 행복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행복과 칭찬에 내 스스로가 자만

했던 것 같다. 처음으로 리딩과 동선을 정하는 날 줄탁동시 준비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멘봉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외웠던 대사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멤버들에게 우울하고 불쾌한 내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했던 것 같아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없다, 그냥 활보란다)을 억지로 끼워넣은 듯한 느낌이었어서 정말 매력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싫었다. 그냥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연습 스케줄도 빽빽하고 업무도 쌓여있어 대충하자라는 심정이 컸다. 내가 해봤자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잘하겠나라는 심정으로 말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한없이 작아지는 감정이 들었다.

그것을 계기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자!'라고 각성하게 되었다.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거만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고 의상, 소품 등을 준비할 수 있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날 리허설 때 난 또 다른 뎀봉을 경험했다. 목소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조명의 열기까지 연습 때와는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또다시 내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멤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잘 할 수 있다고 파이팅 해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콜라도 사주었다. ^^

무대에 오르는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리허설을 하였고 드디어 무대에 오르기 위해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기 시작했다. 난 다른 배우들보다 비중이 작았던 탓도 있고 의상이나 분장이 단순해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다. 준비를 빨리 끝내고 다른 스텝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스텝이 '너는 배우다. 쉬어라.'라고 해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말을 반납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마웠고 편안한 마

음으로 대본을 더 볼 수 있었다.

3회 무대가 모두 끝나고 별다른 실수 없이 무사히 끝났다는 부듯함과 흥가분한 마음이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처음의 어색함, 연습하면서의 자만감과 속상함, 무대에 오르면서의 긴장감, 끝나고 나서는 부듯함과 흥가분함이 뒤엎켜 감동이 되었다. 비록 처음 무대에 올랐고 내가 원한 역할(난 원래 스텝이었다)은 아니었지만 무대 체질이라는 의외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난 준비한 모든 걸 다 보여줬어, 하얏게 내 자신을 불태웠어' 그리고 뒤풀이 때 전사했지 ^^

다음날 숙취에 몸살을 앓았다고... 끝.



【 노들 책꽂이 】

마루야마 겐지의 『인생 따위 옛이나 먹어라』

허위에 대한 날카로운... 사이다 같은 책

≡≡≡ 허신행

2010년 학교 졸업 후 상근자로서 줄곧 노들야학에 있다가 올해 2월 독립(?)을 하였다.

현재는 주식회사 생각의 마을에서 사회복지 관련 출판, 연구 컨설팅 (개인 및 단체의 연구작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인생따위 옛이나 먹어라』
마루야마 겐지 지/김난주 역
바다출판사

2012년 12월 19일 저녁, 나는 현장 인문학 마지막 세미나를 위해서 카페 별꼴에 있었다. 세미나를 하긴 해야 하는데 계속 손은 핸드폰으로 가고 있었다. 대신 결과가 나오고 모두들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에 대해서 절망만을 해온 것 같다. 가끔은 '다들 밑바닥으로 치달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가, '그 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기도 했다가, 결국엔 나라야 망하건 말건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진심으로 했었다(하고 있다).

이 대뎀봉의 시기에 읽었던 몇권의 책이 기억난다.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에 대한 책인데, 이는 새누리가 대중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도무지 왜 국민이라는 작자들은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이해해보려고 산 책이었다. 하지만 너무 두

① 헬조선(헬조선)은 Hell + 조선(朝鮮의 일본식 음독)의 합성어로, 마치 지옥과도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다.(출처: 나무위키)

② 답답한 상황이 통쾌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쓰이는 인터넷 은어. 모 커뮤니티에는 사이타 게시판이 따로 있었다.(출처: 나무위키)

겉과 생각보다 재미없어서 중간에 접었다. 가장 최근에는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인이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이태원에서 수제 맥줏집을 운영하는 저자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거나 다시 희망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저 ‘헬조선^①은 답이 없지.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만 더 크게 만들었다.

그러다 요즘 말로 사이타^②같은 책을 발견했다. 바로 마루야마 겐지의 『인생 따위 엇이나 먹어라』이다. 저자는 멘붕에 빠져 있던 나에게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다 글러먹었으니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라고 화끈하게 말해주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다잡고 온전한 개인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목차만 봐도 저자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책들은 제목이 제일 도발적이고 내용은 그저 그런데, 이 책은 제목이 그나마 제일 덜 도발적이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도발적이라는 점이다.

1장. 부모를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2장. 가족, 이제 해산하자
3장. 국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4장. 머리는 품으로 달고 다니나
5장. 아직도 모르겠나, 직장인은 노예다
6장. 신 따위, 개나 쥐라
7장. 언제까지 멍청하게 앉아만 있을 건가
8장. 애절한 사랑 따위, 같잖다
9장. 청년,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10장.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③ 다른 글에서도 이 분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시골생활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낭만을 이야기하고, 전원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면 실제로 시골에서 은둔생활을 한 저자는 자신의 저서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에서 ‘풍경이 아름답다는 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덧밭 가꾸기도 벅차다’, ‘고독은 시골에도 따라온다’, ‘깡촌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친해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시골에 간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등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④ 글을 쓰면서 유독 직접 인용한 문구가 많다. 마음 같아서는 다 옮겨 적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꼭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야학 국어시간에 수업 교재로 써도 재미있겠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 애국, 효도, 사랑, 종교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그것들의 허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야기한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전형적인 일본식 냉소주의 아니냐, 그냥 배설 차원이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조 있고, 깊이 있는 사유라고 생각되었다.^③ 보통 사람들이 어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알더라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편안하게 내뱉고 있는 저자의 배포에 감동할 따름이었다. “부모를 버려라”, “바보 같은 국민은 단죄해야 한다”, “국가는 적당한 바보를 원한다”, “직장은 사육장이다”, “연애는 성욕을 포장한 것일 뿐이다”, “훌륭한 생이란 없다” 등의 문구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지금까지 잘 포장된 삶을 살아왔다. 나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으며 내 욕망과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심지어 내 욕망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었다. 그런 나에게 마루야마 겐지는 내 인생을 살라고, 온전히 너의 것을 챙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삶을 살라고 꼬장꼬장한 노인이 호통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의 진짜 욕망을 찾고, 당당한 개인으로 오롯이 살아가길 바란다. 나도 언젠가 절대 이별할 수 없을 것 같은 야학에게 “노들 따위 엇이나 먹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무엇도 나를 옥죄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④

비마이너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5인 미만 인터넷신문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강행에 반대합니다

하금철

어쩌다보니 장관에 들어왔다. 어쩌다보니 또 기자가 되었다. 이렇다 인생이 온통 '어쩌다'로 채워질까봐 두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어쩌다'의 연쇄 덕분에 '옹알이'가 아니라 공적인 '말하기'를 배우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산문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주제 넘는 꿈을 꾸며 산다.

세계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12월 3일, 비마이너가 창간 이래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주류 매체가 주목하지 않는 장애인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현장을 누볐던 지난 6년간의 시간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기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꼭 상금을 받아서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비마이너 선정 이유

장애당사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장애인 전문 언론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를 기획 연재로 연속보도하여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에게 이런 칭찬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갈수록 소수매체의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우리 언론 환경에서 비마이너가 걸어온 길이 험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비마이너를 믿고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

다. 비마이너는 이번 상을 계기로 그런 독자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더욱 크게 보답하는 언론이 되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마이너는 소수언론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정권의 시도에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 비마이너는 이번 상을 계기로 그런 독자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더욱 크게 보답하는 언론이 되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런 작은 다짐조차 유지하기 힘든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자들에게 외면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마이너는 소수언론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정권의 시도에 의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부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기존에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 상시 고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들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된 인력 요건에 맞춰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사이비' 언론의 어뷰징(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사를 제목이나 내용만 조금 바꿔 반복으로 전송하는 행위)과 선정성 기사 등 언론 환경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 환경을 파괴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어뷰징으로 '클릭 수 장사'를 할 수 있는 언론은 대부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메인화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언론사입니다. 네이버는 메인화면과 뉴스페이지를 150개 언론사의 기사로만 편집하며, 다음은 173개, 네이트는 116개입니다. 상위 2~10%의 언론사들이 포털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셈입니다. 또한, 100대 기업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사를 이용해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언론은 대부분 '5인 이상 언론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5인 미만' 언론에게 돌려 언론사 간판을 강제로 떼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시행령이 내세우는 표면상의 이유는 '등록요건 강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인터넷신문에 대한 '강제폐간 조치'인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 중 대다수가 5인 미만으로, 1년 내에 이 요건



을 갖추지 못한다면 70% 이상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마이너 역시 이를 피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마이너는 올해 취재 역량 확대를 위해 신입 기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시 고용 5명에는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1년 뒤에 비마이너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폐간되고 나면 다시는 ‘비마이너’라는 이름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비마이너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부문에서, 주류 언론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의 취재를 하는 수많은 소수매체들 또한 5인 미만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 다양성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5인 미만’ 언론 퇴출 이유도 어처구니없지만, 고용된 인력 수로 언론사 퇴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4명이면 짜라시, 5명이면 언론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말장난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게 현재 박근혜 정부입니다. 구청에서 식당 영업허가를 내 주는데 종업원이 몇 명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업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음식 맛이 없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면, 자연히 손님의 발길이 끊길 테고 식당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양식 있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지, 정부가 재단하고 통제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소수 언론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의
다양성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처음으로
상도 받고, 이제 막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한
비마이너 덕분에
1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행되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었기에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속전속결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국민의견 중 찬성이 2건, 반대가 12건으로 반대가 압도적이지만 이는 간편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법치(法治)주의가 아닌 ‘영치(令治)주의’, ‘시행령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였습니다.

처음으로 상도 받고, 이제 막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한 비마이너는 덕분에 1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부의 이런 반민주적 폭거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마이너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이 땅에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신문법 시행령의 폭거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사회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마이너도 이들과 연대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비마이너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 큰 성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언론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헛수고가 되도록, 여러분이 비마이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비마이너라는 작지만 소중한 공론장을 지켜온 독자의 힘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 하나만으로 짓밟을 수 있을 만큼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가오는 2016년,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에 비마이너도 여러분과 함께 물러섬 없이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네 한 바퀴 】

PL사랑방, 반갑습니다! KNP+ 문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명희

노들야학에서, 그리고 광화문 지하역사2층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명회예요. 놀러 와요.

일시 • 2015.12.4 KNP+ 문수와 노들야학 맵이 만났습니다. 장소 • PL사랑방 날씨 • 매우 추웠어요.

근래에 노들야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연립주택 반지하로 새로 보금자리를 만든 PL사랑방의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PL사랑방이 뭐냐구요? PL은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약자로 감염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구요, ‘가진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2012년 감염인들이 힘을 합쳐서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만든 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의 사무실과 회의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1인 상근을 하고 계시는 문수님을 이번 노들바람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노들야학과 정말 가까워서 추운 날 봉다리에서 사무실에 있던 굴을 사부작사부작 챙겨 잠바도 안 걸치고 뛰어갔다 왔습니다. 저와 문수님이 함께 거실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옆에서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질문과 응답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서술하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PL사랑방,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앞으로 자주 언급하게 될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HIV의 감염인, 에이즈 환자를 혼용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엄연히 HIV 감염인 즉,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스(HIV) 감염인과 에이즈(AIDS)는 다른 말입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구요.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영어 약자로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돼 나타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HIV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같은 단어의 뜻으로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HIV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다른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단어는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나타내기도 한 다지요. 앞으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를 분리하여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L사랑방 이곳은, 2012년부터 활동을 한 KNP+의 사무실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근자는 저 1명입니다. 이곳은 후원금과 아름다운 재단의 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초기감염인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쉼터로 숙식을 하는 곳은 아니구요. 사랑방 형태의 각종 회의와 소모임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KNP+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은 낙인지표 조사라고 하는 세계 50개국 각 나라의 감염인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포

절을 받아 KNP+, 나누리+가 공동사업단을 꾸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곳 사랑방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5~10명 정도로 함께 식사도 하고 있어요.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는 20명 정도의 밥상모임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나누리라는 카페의 회원들 그리고 청소년 PL모임 알 R: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나누리 라는 카페를 2008년부터 운영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생기면서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지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대분부의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 상담 글을 올리고 있어요. 카페의 가입자는 1,000명 정도가 되구요. 이 건강나누리 카페에서도 KNP+를 함께 만들게 되지요. 건강나누리, 카톨릭레드리본, 청소년 감염인 PL모임 알 R:, 대구의 해밀, 카노스 5군데의 단체에서 발족을 하였습니다.

현재 HIV 감염인은 10,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죠. HIV 감염인의 경우 약을 먹을 경우에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약을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외부노출 시 사멸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될 경우는 없습니다. 감염은 90%가 성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약을

먹으면 어쨌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경우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도 이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감염수치를 낮추기 위한 초기 감염에 대한 대응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닐로 싸매진 치료 진료 의자

최근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치과를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 6번방에 들어섰더니 진료 의자와 의료도구는 물론 칸막이까지 농사지를 때나 쓸 법한 커다란 비닐로 퐁퐁 싸매어 있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고 권고가 이뤄지겠지만 사회적인 차별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감염예방만 똑같이 하면 돼요. 의료진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술을 일반적으로 준비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감염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과에서는 겁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더 많을 겁니다. 차별상황이 닦혔을 때 HIV 감염인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외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위축이 될 테니까요.

10~20대 감염인의 경우 취업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건강 검진사항에 HIV 검진문항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공란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넘어가야 하고 그 결과는 본인만 알게끔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까지 하였고 실제로 취업을 해야 하는 사

람이 있어 당장에 수정조치가 들어갔던 싸움이 있었습니다.

KNP+가 가장 많이 요구하고 찾아가는 곳은 AIDS&결핵과가 포함된 질병관리본부입니다. 현재 HIV 감염인이나 AIDS 환자가 갈 수 있는 장기요양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발생 시 일반 응급병원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이 병원, 저 병원을 3개월 정도 떠돌면서 다녀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없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장기요양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간병인 월급이 다였는데 그 지원금마저 이번에 깎이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이 1300개 정도가 있다고 쳐도, 그 장기요양병원에 AIDS환자가 입원하려고 할 때 병원에서 거부하면 그만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요양병원마다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감수할 병원이 있을까요? 현재 정부에서 간병인에 대해서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보통 평균 임금 수준 100만원을 맞춰 주기 위해서 70만원 정도를 병원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을 이 정도로 해주는데 어느 병원에서 자기네 돈 들어가며 AIDS 환자들을 입원시켜줄까요?

KNP+와 인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AIDS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바꾸어 나가기엔 힘이 부족합니다. 올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예산산원위원들을 만났고 증액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산마저 깎이는 실정이니깐요.

또 다른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재소자 감염인에 대한 실태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소자에 대해서 약이 공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재소자의 경우 정부의 건

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무부 예산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정부는 엉뚱한 예방사업만 하고, 약을 제공하고 나서 이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취업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의 건강검진이나 혐오반응에 대한 언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보라매병원의 치과진료 문제처럼 당사자에게 수치감을 줄 수 있는 병원 내 차별들도 대응해야 하구요. 그리고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위의 역할도 점차 늘려나 가야 합니다. 건강나누리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초기 감염인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은 HIV 감염인들의 정서적인 안정이겠죠. 이렇게 감염인들이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랑방이 생겨 정말 좋습니다.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28-202620
(예금주: 케이엔피플러스)

【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연대매니저 손지후 님을 만났습니다

노들은 어딜 가든 사람이 여럿 모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다. 이동 문제, 활보 문제, 밥 문제가 기본으로 따라 오는데, 문제들의 우위를 정하긴 뭐하지만, 밥 문제는 나름 아주 중요하다. 그런 우리 조직에 요즘 들어 자주 밥으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3주년 문화제 때 엄청난 양의 밥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더니, 얼마 전 노란들판의 꿈 행사 때도 우리의 저녁 식사를 해결해주셨다.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도 올려주시고, 따뜻한 국도 주시니, 참 맛있고 좋았다. 그리하여 이들 '밥통'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올해 노란들판의 꿈 준비팀장이었던 민구가 맡았다.





민 밥통 소개 좀 해주세요.

지 저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연대 매니저를 하고 있는 손지후고요. 밥통은 2013년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음을 모아 만들었어요. 농성 현장이나 문화제를 같이 참여하고 싶고 돌아보고도 싶은데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또 쉬어야 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분들이 우리가 뭘 해야 현장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거지요. 현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십시일반 조금씩 출자를 해 밥차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걸로 몇 번의 시범운행을 하다가, 2014년에 삼성서비스지회에서 투쟁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밥차가 17일 정도 아예 붙어서 출동을 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같이 해주신 분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cms 후원 신청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cms 후원금을 가지고

밥 연대를 하든, 현장에 필요한 간식연대를 하든 음식연대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민 협동조합이면 조합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 일단 출자조합원은 서른 분 정도 계시구요. ‘지금’이라는 저희 웹진을 구독하면서 정기구독료를 내는 후원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민 그러면 ‘노란들판의 꿈’ 때 와주신 분들이 조합원 분들인가요?

지 출자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는 많이 나오지 못하시고요. 현장에 출동을 하시는 분들은 ‘밥알단’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음식 배식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이 현장에서 바로 다 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재료준비라든

가 반찬이라든가 그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싸게 원가를 구입해 주시는 분 아니면 내가 늦은 시간에 설거지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자원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밥알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120명 정도 모여 있어요.

민 이름이 너무 예뻐요. ‘밥알단’.

지 저희 이름이 ‘밥통’이니까. 밥알 하나하나...

민 아... 그런 의미구나. 밥알 하나하나가 모여 밥통이 되는 거군요.

지 그렇죠.

민 ‘노란들판의 꿈’ 때 보니까 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지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 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설거지였어요. 큰 국통하고 압력솔하고 식판하고 많게는 수백 개씩 뒷정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식당 주방이 아니면 가정집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꽤 고생을 하다가 올해 과천중등무지개학교에서 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보통 정리하는 시간이 밤 9시 정도 되는데 마치고 안정적으로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학교 학부모 중에 저희 밥통 이사장님도 계시고 집행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노들 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해서 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이번 노들 행사에는 직접 와서 배식에 참가해 보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참가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자기들끼리의 역할 분담을 해서 순조롭게, 완전 스텝처럼 일을 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민 그날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행사 끝나고 나왔던 얘기도 있을까요?

지 저희가 작년에도 노들 행사 때 유부초밥이랑 주먹밥 도시락을 준비했었는데, 일단 메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장연 광화문 농성장 3주년, 그리고 시외버스 타기 운동, 그리고 노들까지 세 번의 행사 동안 메뉴가 다 비빔밥이었거든요. 한 입으로, 아니면 한 그릇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준비하는데 저는 실무자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다양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좀 하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중등무지개학교 학생들이 와서 같이 나누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숨 쉴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학생, 학부모가 같이 배식에 참여하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대를 할 수 있는 현장을 더 발굴하자.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었어요.

민 그날 날씨도 엄청 추웠는데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럼 ‘밥통’의 거점은 과천인가요?

지 과천은 설거지하는 곳이구요. 안산에 식판이나 재료를 보관하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요. 냉장고와 싱크대 정도 있는 작은 공간이구요. 사무실처럼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밥차를 가지고 현장에 다니고 출동 문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나 메일로 소통을 해요.

민 그럼 지후님은 밥통에서 상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업이 따로 있으세요?

지 한 달에 많게는 10회 정도 출동을 하는데 보통 출동이 비정기적이다 보니 제가 다른 일을 겸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밥통의 1인 상근직원?

민 한 달에 보통 10회 정도 출동하시는 거예요?

지 월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열 군데가 다 다를 수도 있고, 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구요. 10월 같은 경우는 이엠지전선이라고 경북 성주에 있는 케이블 전선 만드는 곳인데 노동조합 만들고 처음으로 파업했는데 직장폐쇄까지 당해서 이화사거리에 있는 본사로 매주 상경 투쟁을 했어요. 이분들이 식사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연대를 계속했어요. 10월 셋째 준가, 저희가 점심연대 하러 갔더니 본사가 간판을 떼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서로 욕할 거 욕하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했죠. 그렇게 본사가 없어져서 이번 달은 성주 공장에 아예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저희를 알아보시고 버선발로 뛰어 나오면서 오랜만이라고... 완전 시골 촌구석에 공장만 딱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만 고립되어 싸우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다가 저희가 서울에서 오니까 안심도 되고 힘도 나고 하는 거죠.

민 주로 노동자 투쟁 현장을 주로 가시는 거죠?

지 아무래도 그쪽이 워낙 파업도 많으니까요. 근데 꼭 그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올 여름에는 동물단체 카라랑 말복 때 채계장(육계장인데 고기를 뺀) 시식 행사를 청계광장에서 같이 했죠. 생명이건 장애건 소수자의 문제건 고통 받는 현장이건 음식연대가 필요한 곳은 다 찾아가는 게 밥통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민 쌀이나 김치 같은 현물후원을 받아도 좋겠어요.

지 쌀과 김치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오랫동안 학원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것이어서 음식재료의 시가를 전혀 몰랐었어요. 국내산 고춧가루가 1kg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요즘 호시탐탐 고춧가루를 후원 받을 수 없나 노리고 있어요. 괴산에서 농사짓는 이세범님은 옥수수 연대를 하세요. 저희가 여름에 내려가서 수십 가마를 가져와서 투쟁하는 현장에 찌서 드리기도 하고 가마 찌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쌀이나 김치, 고구마 등을 현물후원해 주기도 하세요.

민 이 글을 보고 연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밥통을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지 안정적으로 밥차가 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니 뭐니 해도 cms죠. 안정적인 후원이 가장 절실하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집회나 문화제에 가고는 싶지만 소속돼 있는 단체도 없고, 나 혼자 앉아 있기도 뻘컘하고 그럴 때 함께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밥을 연대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반찬을 집게로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큰 용기를 내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밥알단의 경우는 현장에 못 나오시면 재료준비를 도와주거나 현장에 나오면 배식을 도와주거나 해서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 오시거든요. 그렇게 그곳의 소식을 듣고 하는 게 자기 일상의 변화와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마음이 동해서 후원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알려 주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바라는 건 투쟁하는 곳이 저희가 준비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고 승리를 하여 이 분들이 조금씩 돈을 내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투쟁현장에 보내주시고 그곳이 또 승리를 하여 cms를 받아 다시 현장으로 가고. 그런 바람이 가장 커요.

민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사건이 있다면?

지 모든 현장이 각기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곳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제대로 된 잘 차려진 밥 한 끼가 사람의 존엄성이나 품격을 얼마나 받쳐주는지 모든 현장에서 느껴요. 길 위에서 장판 하나 펴놓고 매연 다 맡으면서 앉아 있고, 감시카메라는 계속 돌아가요. 애들이 뭐 먹나, 얼마나 짜질하게 있나, 얼마나 힘이 빠졌나, 얼마나 외롭게 고립되어 있나 이런 게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파주 쪽에 완전 고립되어 있는 '수 요양원'이라는 곳에 사흘 동안 점심연대를 하러 갔어요. 밥차가 1톤 노란색 트럭이다 보니 워낙 눈에 잘 띄니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재들이 돈이 뭐가 있어서 밥차를 불렀나 할 텐데, 우리가 오늘 가고 내일도 또 가고 하니까 싸우는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거 같아요. 밥도 김밥만 먹고 짜질하게 보였는데 누가 와서 제대로 된 상차림으로 해서 차려 드리고 하니까. 관리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투쟁하는 분들은 우리 배후가 이렇단 말이야 하면서 빠질 수 있잖아요. 모든 현장에서 제가 목격했던 모습들이 것 같아요.

민 반대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지 투쟁이 오래되다보면 조합원끼리도 다룰 수 있고 투쟁은 길게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투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는 계속 출동하고 싶은데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가

장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밥연대를 하는 곳인데 현장에서 단식농성을 해버리면 저희가 참~ 지금 콜트콜텍이나 인천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그런 곳은 안타깝죠.

민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출동하시기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손 무겁게 사 들고 현장에 가서 짹 뿌리는 거라든가 수십, 수백만 원을 쾌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활에 쫓겨서 오천원, 만원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해도 될까? 비교하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하는 일과 관련해서 큰 수고로움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일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지점들을 보고 같이 나누는 렌즈를 장착하고 세상을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밥통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btong>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02-479701
협동조합밥통

【 노들은 사랑을 싣고 】

the power of 승배
야학 동문 정승배 학생

김진수

야학교사 진수입니다. 요새 취미는 점심시간마다 낙산에 올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보는 일은 언제나 좋네요.

“나 슬 끊었어.”

여의도 집회에서, 4년 만에 만난 그가 보자마자 건넨 말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말. 다른 많은 말을 두고, 굳이 저 말을 먼저 한 그의 지금이 궁금했다. 이번 [노들은 사랑을 싣고]의 주인공은 야학 동문 정승배 학생이다.



형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샌 뭐 하면서 사세요? 저번에 여의도 집회에서 뵈고, 인천시청 투쟁현장에서도 보고 했는데.

... 12월부터 활동보조 시간이 400시간으로 늘어나서 집회도 나가고 센터도 다니고 있어. 내년부터는 만들레 야학에 다닐 예정이야.

그렇구나. 인천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왜 인천으로 오셨어요?

••• 10월에 왔어. 발바닥에서 먼저 서울에 알아 봤는데 구하기 힘들었나봐. 그래서 인천으로 오게 됐어. 고마워 발바닥에.

잘 됐네요. 집 좋네요.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사세요??

••• 5년 동안 살 수 있어. 5년 후에 연장 가능하고.

아~ 그럼 앞으로 계속 인천에서 사실 생각인 거예요?

••• 아니 돈 모아서 김포로 갈 거야.

거기 시설 있었던 곳 아니예요? 왜 하필 그곳으로 가려고 하세요?

••• 비밀이야. 아무튼 돈 모으면 김포로 가서 살고 싶어.

비밀이라니,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형, 그럼 술은...

••• 끊었지! 담배도 끊었어. 담배 값이 너무 올라서 끊어 버렸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 대신 커피를 많이 마셔.

커피요?

••• (형은 말없이 서랍장을 열어 커피를 보여 줬다. 서랍장 안에는 ‘내 손안에 작은 카페’가 한가득 들어 있었다.)

이거 믹스 커피도 아니고 비싼 거잖아요. 아메리카노네. 담배값보다 커피값이 더 들겠는데요?ㅋㅋ 야학 오면 매일 먹는데. 아버님이 매일 커피 만들어 주세요. 원두로. 야학 놀러 오세요, 형! 커피 한잔해요!

••• 응. 놀러 갈게. 나 적금도 들고 있어. 한 달에 25만원씩.

그렇게 많이 하세요? 난 십원도 못하고 있는데 나도 얼른 적금을 해야겠어요. 요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 (이때 형이 갑자기 핸드폰을 내미셨다. 그러곤 말이 없으셨다. 핸드폰엔 어머니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있었다. 나도 말없이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 아니 안 보고 싶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지정해 놓고 안 보고 싶다니요. 거짓말 마세요, 형. 가족들이랑은 연락하세요?

••• 아버지랑은 가끔 연락해. 나머지 식구들은 내가 말없이 시설에서 나온 걸 싫어해서 연락을 끊은 지 좀 됐어.

음... 네. 알겠어요. 야학에서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 문주형이랑 상연이형. 아버님도 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도 상연이형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형이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 교사들은 많이 바뀌었지?

네. 많이 바뀌었지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야학 꼭 놀러오세요, 형. 새로운 교사들도 보고 문주형 상연이형 아버님도 보러.

••• 응 갈게. 놀러 갈게.

꼭 놀러 오세요. 겨울에 추워서 힘들면 날 풀린 봄에라도 꼭! 그럼 형 마지막으로 노들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 노들에. 맨날 술 먹고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지금은 끊었다면서요, 술. 그러면 됐죠. 뭐!



'the power of love' 티비는 사랑을 신고의 하이라이트는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한다. 노래가 깔리면 드디어 추억속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몇 십 년 전의 사람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여 만남을 이룬다. 만나게 하는 힘. 서로가 서로를 찾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인터뷰를 마치고 오는 내내 말없이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진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지 않던 형의 말이 귓속에 맴돌았다. 부디 형이 만나기를. 김포에서 어머니와 따뜻한 커피 한잔할 수 있기를. 승배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2015년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급 안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접속 주소
www.yesone.go.kr

2015년 한 해 동안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신 노들 회원+후원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에도 노들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부금 내역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들장애인야학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들후원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지로를 이용한 경우 결제일과 입금일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하셨더라도 2015년도 기부금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지로로 후원 회비를 납부할 경우 통장으로 2016년 1월 3일 입금되며, 해당 회비는 2016년 기부금으로 합산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는 사단법인 노들입니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예술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수막공장 노란들판이 속해 있으며, 지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4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들의 후원인이 받으시

는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단체명은 '(사)사단법인 노들'로 표기됩니다.

★ 자동이체나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이 직접 후원을 신청한 경우나, 지로 후원인인 경우,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CMS 후원과 달리 자동이체나 지로후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기본정보(주민번호, 수령주소, 연락처) 등이 취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꼭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이메일과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 930-5909@hanmail.net
전화 : 02-766-9101~2 / 한명희

2015년 11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강경완 강귀화 강남훈 강문형 강미진 강병완 강복원 강복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유선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고경신 고동수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재현
공명렬 공승룡 광노근 광성자 구경민 구세나 구수준 구승기 구현아 공경혜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순성 권영주 권영진 권용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운 권혁은
김가경 김각균 김건옥 김건형 김경숙 김경혜 김관희 김광국 김근식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기호 김남수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명화 김문주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호 김민희 김병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옥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욱 김용진 김우경
김원성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정 김이종 김익현
김인숙 김재경 김재양 김재희 김정구 김정민 김정옥 김정은 김정하 김정현 김종윤 김종호
김종환 김 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에 김지은 김지환
김진규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탄진 김태승 김태인 김태훈 김푸른솔 김한민
김한준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지 김혜배 김형호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호식
김호진 김홍희 김희정 김희찬 김희현 나선영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지현 남정하
노미경 노상경 노상은 노영조 노유리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류영욱 류승하 류정하 류정하
류향희 마미주 문건화 문경희 문명동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아영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영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누리 박영숙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세단 박세진 박세호
박승하 박시백 박애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은미 박은정1 박은정2 박장근 박재국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주연 박주원 박준호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창숙
박철우 박태만 박하순 박현민 박현정 박현희 박홍석 배경원 배덕민 배운섭 배수자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준영 배진숙 배치녀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변하연 서기현
서남교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성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정록 서정웅
서주형 서호필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주영 손준희 손희경
송기호 송무림 송병준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종호 송창국 송현정 신미숙 신봉순
신봉준 신석호 신수정1 신수정2 신숙희 신수영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심귀환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정구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인숙 안정은 안중녀 안준희 안향미 안희옥 양무현 양민화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연금순
오미영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중환 오지은 옥 샘 우시우 원재민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창재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성근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훈1 이경훈2 이경희 이광만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기순 이기훈 이동은 이동진 이라나 이리나 이문희 이미나 이미리얌 이미영 이미정
이범민 이비함 이상림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이수연 이수현 이순웅 이슬기 이승민
이승범 이알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란 이원진 이유미 이유진 이윤욱 이윤정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1 이은정2 이은주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욱 이준범 이지연 이지영 이지는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후원방법 안내

①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돌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②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 방식과 직접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찬미 이철우 이태곤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호연 이호중 이회국 이효정 임광열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춘학 임태종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 옥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병순 정상업 정상옥 정선우 정승이 정수연 정연일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일 정용훈 정우영 정우중 정우준 정은영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의화 정재훈 정종권 정종훈 정지영 정진영 정진이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진 정혜림 정혜원 정희덕 조경애 조미숙 조미정 조사랑 조성남 조성진 조수안 조승하 조아라 조원일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용현 조자영 조재범 조향숙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업 좌미경 주기종 주상연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혜롬 진영욱 진영인 차무영 차순정 채이배 채정주 천성호 천종민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진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식 최영은 최우영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익 최재민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진석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현진 최혜영 최호연 표미라 표은혜 하경남 하금철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 창 허효재 현영철 현정민 형장우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승대 홍순희 홍영희 홍은전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성윤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해진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강수혜 고명선 구자숙 김미선 김선심 김용철 김정지현 김지연 김지윤 남완승 류동훈 류승아 박경선 박현규 사랑의후원금 서금석 손환목 송영자 신동길 신디 안성희 엠알엠글로벌 오선실 윤중배 윤지형 이두혁 이수영 이한진 이현숙 이형욱(부개성누 재) 아름다운동행 정옥순 조광배 차명수 최상희 티에이치엘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노들로 들어온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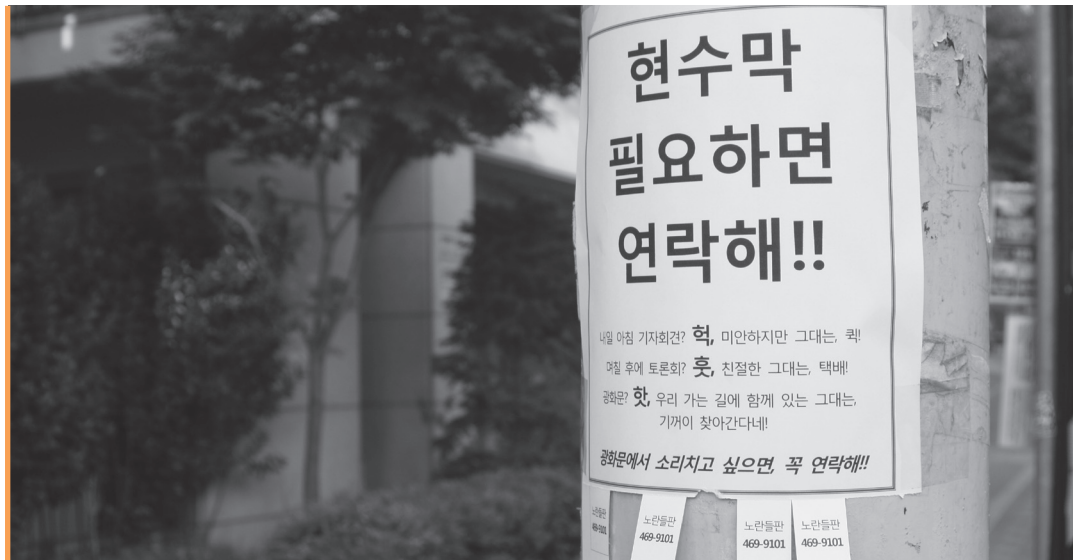
9월 | 음향자유 포도 네 상자
지성법무사사무소 한과 두 상자

11월 | 푸른곰팡이 & 미니팜협동조합
연시, 감말랭이, 대추, 사과

10월 | 김영균 추모사업회 단호박과 고구마 한 상자
스파인2000 사과와 바나나
오하나 다양한 우주가 들어있을 여러 책 한 상자

*노들20주년 후원물품 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홍은전 지음, 까치수업 펴냄, 10,000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잡곡(10,000원) / 20주년 “노들” 티셔츠(15,000원)
매실청(900ml,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
양말(3,000원) / 신문지 재생연필(10자루, 3,000원)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퀉!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하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꿈꾸는 현수막 노란돌판

주문·문의 02-469-9101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ncil.or.kr>

이메일 nodl@hanmail.net 트위터 @nodlcl

전화 02)766-9103 /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ttp://www.420pan.or.kr>

이메일 centerpan@420pan.or.kr

전화 02-6082-6420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도망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마음, 자유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었어요. 교도소는 출소할 기약이라도 있지만 형제원은 그것마저도 없었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숫자가 된 사람들』에서 박경보 님 구술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지음, 오월의봄, 2015

